

연구 보고서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단어와 구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연구자 : 김창섭

1998

**국립국어연구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연구원장 귀하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단어와 구의 형태·통사론적 연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998년 12월 11일

연구자 : 김창섭  
(서울대)



# 목 차

1. 머리말 .....	1
2. 'N+N'형 합성명사와 명사구 .....	6
2.1. 'N+N'형 합성명사와 명사구의 구별 기준 .....	6
2.2. 기준의 적용 .....	10
3. '-어'형 합성동사와 접속 구성, 내포 구성 .....	13
3.1. 접속구성과 비접속구성의 구별 .....	13
3.2. 내포구성과 합성동사의 .....	16
4. 'X하다'의 내부 변화 .....	26
4.1. '하...'의 생략과 여기 분리 .....	26
4.2. 'X하다'와 'X를+하다' .....	29
5. 마무리 .....	34
참고문헌 .....	37
[부록 1] 'V1-어+V2'형 합성동사 목록 .....	39
V1 기준 배열 .....	39
V2 기준 배열 .....	85
[부록 2] '... X(를) ... 하다'의 짝이 없는 'X하다' 동사 목록 .....	110



# 1. 머리말

본고는 한 편으로는 형태론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진 연구들을 ‘어휘 자료 처리’라는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거기에 새로운 연구를 더하며, 또 한 편으로는 가능한 한 관련된 어휘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어 어휘 자료의 사전학적 처리나 전산언어학적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단어(파생어와 합성어 포함), 어근, 접사(파생접사), 조사, 어미, 관용어, 연어가 분석되어 각각의 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문장 속에서 여러 층위의 단위들과 그들의 결합체(혹은 단순히 연속하는 형식들)를 분석하여 구조를 밝히고 구성요소들의 문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와 단어(합성어나 파생어)의 구별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단어 내부의 구조 변화에 대한 어떤 해석이 내려져야 하고, 품사 분류에서 중간적 성격을 보이는 어휘요소들에 대해 품사가 결정되어야 하며, 합성어의 다의어성이 점검되는 등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 문제들의 구체적인 예들이다.

(1) 어떤 문장 속의 ‘(X)AB(Y)’에서 ‘AB’를 합성된 한 단위로 인정하는 문제

- ㄱ. ‘소설+책’은<sup>1)</sup> 한 단어(합성명사)인가 통사적 구성(명사구)인가?
- ㄴ. ‘걸어+가-’는 한 단어(합성동사)인가 통사적 구성(접속 구성 등)인가?
- ㄷ. ‘빛+나-’는 한 단어(합성동사)인가 통사적 구성(동사구, 문장)인가?
- ㄹ. ‘으로+부터’는 한 단어(합성조사)인가 ‘...으로]부터’의 단순한 연속인가?<sup>2)</sup>

---

1) ‘소설+책’의 가운데 표기한 ‘+’는 전후 성분을 각각 독자성을 유지하는 두 단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합성된 한 단위로 인정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사용하기로 한다.

2) 예를 들어 “그 때로부터”에서 ‘으로+부터’가 합성조사라면 ‘[[그 때][로부터

- ㉠. '-는--다'는 한 어미(합성어미)인가 '...는]다]'의 단순한 연속인가?
- ㉡. '새빨간+거짓말'은 한 단어(합성명사)인가 관용구인가?<sup>3)</sup>

(2) 한 단위가 그 내부 구조에서 변화를 입을 때의 처리 문제

- ㉠. '나타만 나면'은 '나타나면'과 '만'의 결합인가?
- ㉡. '어른들스럽구나'는 '어른스럽구나'와 '들'의 결합인가?
- ㉢. '(조작법이) 간단.'은 '간단하...'의 이형(異形)인가?
- ㉣. '공부하다'와 '공부를 하다'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 ㉤. '(대화에)끼어들다 : 끼들다', '\*끼어입다 : 끼입다' 등의 본디말과 준말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관용구 '입맛이 쓰다'와 '입맛이 쓰디쓰다', '입맛이 몹시 쓰다'의 변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 어떤 형식의 품사론적 신분 결정의 문제

- ㉠. '원시+시대'의 '원시'의 신분은 무엇인가(명사/관형사/어근), 그리고 '원시+시대'는 합성명사인가 명사구인가?
- ㉡. '廢+(家電+製品)'의 '廢'의 신분은 무엇인가(관형사/어근/접두사)?
- ㉢. '[마음]+껏, [네 마음]+껏'에 있는 '껏'의 신분은 무엇인가(접미사/조사/명사)?
- ㉣. '(국문과에 다니는) 학생답다'에서 '답다'의 신분은 무엇인가(형용사/파생접미사/통사적 파생의 접미사)?

(4) 합성어에서 동음이의어/동철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 문제

- ㉠. '단춧구멍'(1. 단추를 끼우는 구멍. 2. 단추에 있는 구멍)은 동음이

---

터]]'처럼 분석되고, 단순한 두 조사의 연속이라면 '[[[그 때][로]][부터]]'처럼 분석된다.

- 3) '\*거짓말이 새빨강다', '\*소리가 희다'가 성립하지 않고, '소리가 크다'는 성립하나 '큰소리를 친다'의 뜻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에서는 '새빨간+거짓말'은 관용구('새빨강다'의 부수향)로 처리하였고, '흰소리'와 '큰소리'는 합성어로 처리하였다.



의어인가 다의어인가?

- ㄴ. ‘벽돌집’(1. [벽돌집] 벽돌로 지은 집. 2. [벽돌집] 벽돌을 파는 상점)은 동철이의어인가 다의어인가? [참고: ‘나무집’(나무로 지은 집)과 ‘나뭇집’(나무를 파는 집)]
- ㄷ. ‘받아+가-’는 동음이의어인가? (1. ‘받다’와 ‘가다’를 다 함의하는 ‘받아가다’: “책은 내가 직접 받아+갈게.” 2. ‘받다’만을 함의하고 ‘가다’는 함의하지 않는 ‘받아가다’: “책은 철수를 시켜 받아+갈게.”)

(5) 사이시옷,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표기, 혹은 복수 표기 허용에 따른 표기의 변이형 처리 문제

- ㄱ. 한자표기 여기에 사이시옷을 쓸 수 없음: [전세집]에 대한 ‘전셋집’과 ‘傳貰집’
- ㄴ. 규정과 표기 전통의 갈등: ‘登校길’에 대한 ‘등곶길’과 ‘등교길’
- ㄷ. ‘나타나면’+‘만’의 띄어쓰기: ‘나타만 나면’과 ‘나타만나면’
- ㄹ. 띄어쓰기 원칙과 허용 규정: ‘떡어 버렸다’와 ‘떡어버렸다’,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의 것들은 문제의 부류와 그 예의 총 목록이 아니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예거된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1)처럼 어느 언어에서든지 대두되며 오랫동안 연구되었어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구할 수 없는 이론적 난제도 있고, (2), (3), (5)처럼 국어에 고유한 문법과 표기의 문제도 있으며, (4)처럼 일반 어휘의미론적 문제의 합성어 판도 있다.

특별히, (1)의 문제는 사전에 등재할 표제어를 찾는 경우와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연쇄체가 단어인가 통사적 결합체(흔히 구)인가를 구별하는 경우에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1ㄱ~ㄷ)의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조사, 합성어미 등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서는 ‘방+문’이라는 합성명사 혹은 명사구의 예로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6) ㄱ. 방에는 문이 있다.

- ㄴ. 큰 방이 아니라 작은 방 문이 고장났다.

ㄷ. 방+문이 고장났다.

ㄹ. 우리 목공소에서는 주로 방문을 만들어요. (\*[작은 방] 문, \*[아이 들 방] 문)

사전에 등재할 표제어를 찾는 경우라면 (6ㄱ)에서 단순어 ‘방’과 ‘문’의 존재가 확인되고 (ㄷ)에서 합성명사 ‘방문’이 확인되면 ‘방’, ‘문’, ‘방문’이라는 표제어 셋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ㄴ)이나 (ㄷ)의 ‘방+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도 된다. 그러나 모든 문장을 분석하여 통사적 단위들에 범주명을 달아 주는 작업(표달기, tagging)을 한다면, ‘방’, ‘문’, ‘방문’의 존재 확인에 더해 문장 속의 모든 ‘방+문’에 대해 그것이 두 단어(즉 句)로서의 ‘방문’인지 한 단어(즉 합성명사)로서의 ‘방문’인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ㄴ), (ㄷ)의 ‘방+문’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성명사인지 아니면 구(의 일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ㄴ)의 ‘작은 방 문’은 ‘[작은 방] 문’으로 분석되므로 그 ‘방 문’은 두 단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ㄷ)의 ‘방+문’은 합성어 여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거기에는 근원이 다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검증법으로는 문제의 ‘A+B’가 합성어임을 확인해 주는 것은 없고 합성어가 아님을 확인해 주는 것만 있다. 예를 들어 (6ㄷ)의 ‘방+문’이 ‘[작은 방] 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그 ‘방+문’은 합성명사가 아니다. 그러나 ‘[작은 방] 문’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하여도 아직 ‘방+문’을 합성명사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 대체될 수 없는 이유가 ‘방+문’이 합성명사인 데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검증법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첫째, (6ㄷ)의 ‘방+문’이 ‘작은 방 [門과 燈]’으로 대체될 수 있어도 그것은 합성명사가 아니다. 둘째, (6ㄷ)의 ‘방+문’에서 ‘방’이 실세계의 어느 특정한 대상을 지시한다면 ([+특정성]의 자질을 가진다면) ‘방+문’은 합성명사가 아니다. 이 외에 다른 검증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검증법들은 모두 문장을 포함한 특정 문맥 속에서 결정되는데, 실제에서는 그 문맥의 성격이 애매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 예를 들어

‘방+문이 고장났다’의 ‘방+문’을 ‘작은 방+문’으로 대체했을 때 원 문장의 정체성(正體性)에 변화가 발생했는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그 대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텐데, 일반적으로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물론 이 연구에서 위 (1)~(5)의 문제들을 다 검토할 힘은 없다. 언어학의 오랜 난제를 또 다시 다루면서 어지러운 발자국만 더하는 것은 본 연구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만으로 넘어가고, 글 전체의 균형을 손상할지라도 비교적 최근에 그 문제성이 부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길게 다루고자 한다.<sup>4)</sup>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복합어(합성어와 파생어)를 다루어 온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합성명사와 관련된 단어와 구의 문제[(1ㄱ) 포함], 합성동사와 관련된 단어와 구의 문제[(1ㄴ), (2ㄱ), (4ㄷ)포함], 그리고 ‘X하다’형 파생동사(형용사 포함)와 관련된 단어와 구의 문제[(2ㄷ, ㄴ) 포함]의 순서로 다루기로 한다. 국어 어휘 체계에서 양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어의 문제는 (1ㄱ), (3ㄱ), (5ㄴ)과 관련되면서 합성명사의 문제에 포괄되지만, 전문어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연구가 따로 필요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4) 나머지 문제는 다음의 연구에서 적절한 틀을 잡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품사론이 먼저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N+N'형 합성명사와 명사구

국어의 합성명사의 대표적인 부류는 'N(-스)+N'형의 합성명사이다(예 : '쌀밥, 잔칫날'). 여기에서 사이시옷 관계는 맞춤법과 관련된 다른 차원의 성격이 함께 거론되어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연구로 돌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N+N'형만을<sup>5)</sup> 다루기로 한다. 먼저 'N+N'형의 합성명사와 명사구를 구별하는 기준을 세우고, 다음에 몇 가지 경우에 그 기준의 적용을 시도할 것이다.

### 2.1. 'N+N'형 합성명사와 명사구의 구별 기준

어떤 두 명사의 연쇄 '[A]<sub>N</sub>+[B]<sub>N</sub>'가 합성명사인가 명사구인가를 가리는 데 사용되는 기준들을 의미론적인 것, 문법론적인 것, 화용론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이들 기준 가운데 가장 소박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명칭은 한 단어라고 판단하는 의미론적인 것이다. 어떤 'A+B'가 어떤 일정한 개념의 '이름[名稱]'이면 그 'A+B'는 하나의 단어(합성명사)이다. 그 일정한 개념을 'T'라고 한다면 'B'는 'T'의 類概念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A'는 'T'와 관련된 사항들 중 하나가 이름의 구성요소로 선택된 것이다. 예를 들어 '배꼽티'는 '배꼽을 가리지 못하는 티(티셔츠)'이고, '목티'는 '목을 가리는 티(티셔츠)'이지만 이러한 뜻은 '배꼽티', '목티'라는 표현(이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표현과 결부된 개념 자체에서 나온 것이다. 그와 달리 'A+B'에서 'A'와 'B'가 별개 개념이며 'A'는 'B'를 기술하기 위해 화자가 선택하여 가져온 것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 'A+B'를 이름이 아니라 구(명사구)라고 판단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 여기에서 'N+N'형에는 '논밭', '위아래'와 같은 병렬구성의 것들과 '쌀밥, 물뽕, 콩기름'과 같은 관형구성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관형구성의 것이다.

(1) 우리 베란다에도 베란다국화를 키우자.

(2) 마당에 있는 국화는 꽃이 피었는데 베란다 국화는 아직 소식이 없다.

(1)의 ‘베란다국화’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사물의 이름으로 느껴진다. 이름인 ‘베란다국화’는 어떤 사물에 이미 결부되어 있어서 그 구성요소인 ‘베란다’는 화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에 반해 (2)의 ‘베란다 국화’는 이름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구성요소 ‘베란다’와 ‘국화’가 각각 별개 개념인데 화자가 ‘국화’를 기술하기 위해 ‘베란다’를 선택하여 가져온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들은 모두 ‘느낌’ 즉 우리의 언어직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화자의 직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법론적인 기준은 어떤 복합 형식 ‘A+B’가 하나의 단어라면 ‘A’나 ‘B’가 독자적으로 어떤 통사론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가 조사를 가진다든가, ‘A’나 ‘B’ 어느 하나라도 관형수식되거나 대등접속되어 확대된다든가, ‘A’나 ‘B’ 중 하나만이 생략된다든가, 대명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A+B’는 합성명사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시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머리말에서 ‘방+문’의 예로써 본 바 있다. 반복하자면 첫째는 문제의 ‘A+B’가 합성어임을 확인해 주는 검증법은 없고 합성어가 아님을 확인해 주는 검증법만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검증법의 個數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셋째는 이 검증법들은 주어진 문맥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데 적용 과정이 문맥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창섭(1996 : 27-28)에서는 ‘[A]<sub>N</sub>+ [B]<sub>N</sub>’에서 ‘A’가 ‘B’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의미 관계에 있을 때 즉 ‘A’가 ‘B’의 형상, 재료, 수단·방법을 나타낼 때는 ‘A+B’의 구가 만들어질 수 없고 오직 ‘A+B’의 합성명사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ㄱ. 고추잠자리 : \*[고추]의 잠자리, \*[붉게 익은 고추] 잠자리

ㄴ. 쌀밥 : \*[쌀]의 밥, \*[우리 나라 쌀] 밥

ㄷ. 불고기 : \*[불]의 고기, \*[숯에 붙은 불](의) 고기

(4) ㄱ. 베란다 국화 : [베란다]의 국화, [거실 앞 베란다] 국화

ㄴ. 여름 장미 : [여름]의 장미, [올해 여름] 장미

위에서 'A'의 'B'에 대한 관계는 (3)에서는 차례대로 형상, 재료, 수단·방법이고, (4)에서는 장소와 시간인데, (3)의 'A'는 조사를 가질 수도 없고 독자적으로 관형어를 가질 수도 없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검증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쌀 [밥이나 떡]'과 같이 'B'만의 확대도 한결같이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4)의 'A'는 조사를 가질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관형어를 가질 수도 있으며, '베란다 [국화하고 선인장]', '여름 [장미나 카네이션]'과 같이 'B'의 확대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3)의 'A+B'는 합성명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4)의 'A+B'는 명사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A'가 'B'에 대하여 형상, 재료, 수단·방법의 의미관계를 가질 때는 일반적으로 'A+B'의 명사구로 표현될 수 없으므로<sup>6)</sup> (3)의 '고추잠자리', '쌀밥', '불고기' 등은 구에서 어휘화한 것일 수 없고 처음부터 다음 (5)와 같이 합성명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에 (4)의 '베란다 국화', '여름 장미'는 물론 (6)과 같이 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5) [고추]N, [잠자리]N --- (합성명사 형성) ---> [고추잠자리]N

(6) [베란다]N, [국화]N --- (구 형성) ---> [베란다 국화]NP

이로써 김창섭(1996)에서는 'A'가 'B'에 대해 형상, 재료, 수단·방법을 나타낼 때 그 'A+B'는 합성명사라고 하는 구별법을 내놓았다. 나아가 'A+B'의 합성명사 형성이 반드시 위 세 가지 의미 관계에 제한된다고 생각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다른 장애가 없는 한 모든 '한정-피한정 관계'의 'A', 'B'가 'A+B'형 합성명사로 형성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합성명

---

6) 국어에는 구로서는 표현할 수 없고 합성명사로만 표현할 수 있는 의미 관계가 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관계들이 'N1+N2'의 구로 형성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미관계들이 'N1+N2'의 구로 형성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로서의 ‘베란다국화’도 (5)의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sup>7)</sup>

김창섭(1996)의 이 구별법은 ‘A+B’가 하나의 단어라면 A나 B가 독자적으로 어떤 통사론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문법론적 기준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 구별법은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상, 재료, 수단·방법 관계의 ‘A+B’는 하나의 이름으로 느껴진다는 점에서 위의 의미론적 기준도 만족시킨다. 그러나 그 외의 의미 관계 즉 ‘A’가 ‘B’에 대하여 장소, 시간, 용도 등의 의미관계를 가질 때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인 기준으로 ‘A+B’의 ‘A’가 [+特定性]을 가지면 ‘A+B’는 합성명사일 수 없다는 기준을 들 수 있다.<sup>8)</sup> 예를 들어 앞에서 본 (1), (2)의 ‘베란다+국화’에서 ‘베란다’가 어떤 특정한 베란다가리키면 그 ‘베란다+국화’는 구라고 판정된다. (1)의 ‘베란다’는 [-특정성]을 가지므로 ‘베란다+국화’는 합성명사일 가능성이 있지만, (2)의 ‘베란다’는 어느 특정한 베란다가리키므로 그 ‘베란다+국화’는 구일 수밖에 없다. 이 기준은 ‘A’가 구체명사일 때는 문맥만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나, ‘A’가 추상명사일 때는 그것이 [+특정성]으로 쓰였는지 [-특정성]으로 쓰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용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의미론적 기준, 문법론적 기준, 화용론적 기준에서 본질적인 것은 의미론적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이름으로서의 합성명사 ‘A+B’를 만드는 과정은 대단히 생산적이다. 그러나 세계에 먼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 있

---

7) ‘베란다국화’는 (6)의 산물인 구 ‘베란다 국화’가 어휘화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구가 어휘화하여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합성명사 형성 규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구의 어휘화는 개별적, 예외적 현상이라고 본다. 김창섭(1996 : 40) 참고.

8) 후지사(1996 : 344)에서는 Mithun(1984)의 非總稱 명사는 복합어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관찰을 가져와 국어의 ‘X하다’형 동사 형성의 ‘X’가 총칭명사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단 ‘A’가 고유명사일 때는 [+特定性]을 가지지만 ‘A+B’가 합성명사로 판정되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채완(1984)에서는 비특정성과 총칭성은 지시(referent)가 아니라 속성(attributive)을 문제삼으며, 비특정적 명사구는 결과적으로 총칭적 명사구와 겹친다고 하였다.

어야 그에 대응하는 합성명사도 만들어질 것이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합성명사는 ‘A’와 ‘B’의 기계적인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어의 극히 일부에 제한될 것이다. ‘A+B’에서 이름 구성 요소로서의 ‘A’는 그것이 ‘B’의 형상, 재료, 수단·방법을 나타내든, 또 장소나 시간, 용도를 나타내든 관계 없이 특정한 ‘T’를 지칭하기 위해 선택된 요소이므로 ‘B’와 분리되어 따로 어떤 통사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B’와 별도로 세계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B’를 기술하는 수단으로 화자가 선택하여 가져온 ‘A’는 ‘B’와 별도로 통사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세계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시할 수도 있다. 단 국어 문법 체계에서는 ‘A’가 ‘B’의 형상, 재료, 수단·방법을 나타낼 때는 ‘A’가 ‘B’를 기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어 ‘A+B’형의 구를 만들 수 없다.

## 2.2. 기준의 적용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많은 학자들이 ‘[A]<sub>N</sub>+ [B]<sub>N</sub>’의 합성명사와 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A’나 ‘B’의 의미가 바뀌어 ‘A+B’의 의미가 비합성적으로 되면 ‘A+B’는 합성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서정수(1990)에서는 ‘A’의 의미가 바뀐 예로 ‘벼락부자’, ‘B’의 의미가 바뀐 예로 ‘밥벌레’(‘일은 하지 않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를, 그리고 ‘A’와 ‘B’의 의미가 다 바뀐 예로 ‘쥐젖’(‘젓꼭지 모양의 작은 사마귀’)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에서는 ‘벼락부자’는 그것이 부자의 한 부류를 지칭하는 이름이므로 합성명사로 판단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벼락’이 부자가 되는 과정의 ‘형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도 ‘벼락부자’는 합성명사로 판단된다. ‘벼락’이 어떤 실제의 특정한 벼락이 아니라는 점, 즉 ‘벼락’이 [-특정성]의 자질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단지 그것이 합성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을 알게 된다. 또 ‘밥벌레’는 사람이 벌레로 간주된 가상의 단계에서 벌레의 한 종류의 이름으로 쓰였기 때문에 합성명사로 판단한다. 의미변화는 이미 합성명사가 된 다음에 비유적으로 사람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쥐젖’의 경우는 구로서의 ‘쥐 젖’이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면서 어휘화하여 사마귀의 한 종류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성명사가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름이 된 결과 ‘쥐젓’의 ‘쥐’도 ‘젓’도 독자적인 통사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비합성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합성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비합성적 의미를 가지지만 ‘부처님의 가운데 토막’과 같이 조사 ‘의’를 가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합성명사일 수 없고, ‘손 크다’도 비합성적 의미를 가지지만 ‘손이 크다’와 같이 조사 ‘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형용사일 수 없다. 이들은 합성어라기보다는 관용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유명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한국대학교 사회대학’과 같은 표현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한국대학교’ (校名)는 하나의 고유명이다. 의미상 ‘한국’은 ‘대학교’를 기술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름의 구성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문법적으로도 ‘한국’이 확대될 수도 없고 그 외의 어떠한 통사적 행위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한국대학교’는 하나의 합성명사로 된 고유명이다. ‘사회대학’에 대해서도 현행 맞춤법에서는 ‘사회’와 ‘대학’이 따로 단어인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사회의’와 같이 확대될 수 없는 이름 요소이므로 ‘사회대학’은 하나의 합성명사이며 또 고유명사이다.<sup>9)</sup> 다시 ‘한국대학교 사회대학’의 ‘한국대학교’와 ‘사회대학’은 각각 확대될 수 있어서 ‘한국대학교의 사회대학’이나 ‘[우리 한국대학교] 사회대학’<sup>10)</sup>, ‘[한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한국대학교 [사회대학과 사범대학]’ 등이 가능하다. 이 경우의 ‘한국대학교’는 ‘사회대학’을 기술하는 말이며 따라서 ‘한국대학교 사회대학’이라는 전체 표현은 명사구로서의 고유명이 된다.

‘[A]<sub>N</sub>+ [B]<sub>N</sub>’에서 ‘A’가 추상명사이면 우리의 구별법을 분명하게 적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交通’을 ‘A’로 하는 ‘[A]<sub>N</sub>+ [B]<sub>N</sub>’ 형의 표현들로 예를 들어

9) 만일 ‘사회대학’이 일반 사회의 한 조직으로 인정받으면 그때는 고유명사적 용법과 보통명사적 용법을 다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어느 대학교가 되었던 사회대학에 진학하겠다.”의 ‘사회대학’은 보통명사로 쓰인 것이다. ‘사범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등은 고유명사적 용법과 아울러 보통명사적 용법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10) ‘우리’의 피지시 인물들은 한국대학교 소속원이기는 하지만 사회대학 소속원은 아닐 경우이다.

보기로 한다.

- (7) 가. ?교통 발달로 / 교통의 발달로…  
나. ?교통 마비로… / 교통의 마비로…
- (8) 가. 교통+관계 : 전 근대적인 교통 및/과 통신 관계로…  
나. 교통+문제 : 교통 및/과 통신 문제 때문에…  
다. 교통+사정 : 그 지역의 교통 및/과 통신 사정은…
- (9) 가. 교통+행정 : 교통 및/\*과 통신 행정  
나. 교통+기관 : 교통 및/\*과 통신 기관  
다. 교통+질서 : 교통 및/\*과 통신 질서
- (10) 가. 교통+사고 : 교통 \*및/\*과 통신 사고  
나. 교통+경찰 : 교통 \*및/\*과 전투 경찰  
다. 교통+정리 : 교통 \*및/\*과 통신 정리  
르. 교통+地圖 : 교통 \*및/\*과 통신 지도  
口. 교통+지옥 : 교통 \*및/\*과 통신 지옥

먼저 의미론적으로 (7), (8)은 일정한 개념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0)은 확고한 개념 형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9)는 중간적이라 할 수 있다. 문법론적으로는 (7)의 경우는 ‘A의 B’와 같은 분명한 통사적 구성이 자연스럽고 ‘의’가 없는 ‘AB’는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한 단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8)의 ‘교통+관계, 교통+문제, 교통+사정’은 ‘A 및 A’나 ‘A와 A’의 확대를 허용하므로 우리의 문법론적인 기준에 따라 구로 보아야 한다. 반면에 (10)의 ‘교통+사고, 교통+경찰, 교통+정리, 교통+地圖, 교통+지옥’은 그러한 확대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합성명사로 보아야 한다. (9)는 (8)과 (10)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및’이 국어의 접속어 중에서는 미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및’에 의한 ‘A’의 확대를 허용하므로 (9)의 ‘교통+행정, 교통+기관, 교통+질서’는 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어'형 합성동사와 접속 구성, 내포 구성

국어의 합성동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류는 '동사어간-어+동사어간'형 합성동사('-어'형 합성동사)이다. '-어'형 합성동사와 유사한 것으로 어미 '-어'를 매개로 하여 V1의 절 혹은 구([XV1])와 V2가 결합한 통사적 구성(접속 구성과 동사구 내포문 구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편의에 따라 접속 구성의 'XV1-어 V2'나 'V1-어 V2'를 '-어'형 접속구성이라 부르며, 동사구 내포문 구성의 'XV1-어 V2'나 'V1-어 V2'를 '-어'형 내포구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합성동사와 통사적 구성의 구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X)V1-어+V2'라 표기하고 '-어'형 동사 연쇄라고 부르기로 한다. 보조동사 구성은 통설을 따라 내포구성의 한 종류로 보기로 한다(김창섭 1996 : 80 참고).

이들을 어휘 자료로서 처리하는 과정은 주어진 문장 속에서 이들의 구성을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구별을 위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기준들을 다시 평가하고, 국어의 어휘 자료 처리에 더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현대국어의 '-어'형 보조용언의 목록을 제시하고, '-어'형의 접속구성, 내포구성, 합성동사를 가려 합성동사 목록을 부록1에 제시하고자 한다.

#### 3.1. 접속구성과 비접속구성의 구별

'V1-어 V2' 연쇄의 연구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들을 합성동사와 접속구성 그리고 내포구성으로 구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제2장에서 어떤 연쇄 'XABY'에서 'AB'가 한 단어라면 '(X)A'나 'B(Y)'가 독자적으로 어떤 통사적 행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X)V1-어+V2(Y)'에서 'V1-어+V2'가 합성동사라면 어떤 성분(부사어, 목적어 등)이나 조사, 어미 등이 '(X)V1-어'나 'V2(Y)'와만 통합관계를 맺는다면, '(X)V1-어'나 'V2(Y)'만이 代形式化하거나 생략될 수는 없을 것이다.

최현배(1937) 이래 현재까지 접속구성과, 다른 두 가지 구성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안된 것들 중에 가장 변별력이 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서’의 삽입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서’는 ‘(X)V1-어’와 통합되는 것이므로 이 ‘서’가 삽입될 수 있는 ‘-어’형 동사 연쇄는 당연히 합성동사 구성일 수 없게 된다.

- (1) ㄱ. 내가 처음 연을 만들어(서) 날렸을 때... (접속구성)  
 ㄴ. 형이 나에게 빙긋 웃어(\*서) 보였다. (내포구성)  
 ㄷ. 형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보았다. (내포구성 중 보조동사구성)  
 ㄹ. 철수는 그 제안을 받아(\*서)들었다. (합성동사)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서’가 개입될 수 없으면 그것은 비접속구성(내포구성이거나 합성동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가 개입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접속구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 (2)의 ‘달려+오다’로써 이 관계를 보기로 하자.

- (2) ㄱ. 여기까지 달리고 또 달려+왔어요(달려서 왔어요). (접속구성)  
 ㄴ. 선수들이 달려+오고(??달려서 오고) 있습니다, 비켜 주십시오. (합성동사)  
 ㄷ. 운동 삼아 달려+왔어요(달려서 왔어요). (합성동사 / 접속구성)  
 ㄹ. 앞으로도 내 이 다리로 달릴 거야, 지금까지 달려 온(\*달려서 온) 것처럼. (내포구성 중 보조동사구성)

우선 (2ㄱ)의 ‘달려+오-’는 그 앞 부분과 함께 ‘[달리고 또 달려] 오-’와 같이 분석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합성동사일 수 없음이 드러나며, ‘서’가 삽입될 수 있어서 내포구성이라고 할 수도 없어 접속구성임이 분명해진다. (2ㄹ)의 동사 연쇄에는 ‘서’가 삽입될 수 없고, (2ㄴ)의 동사 연쇄에는 ‘서’ 삽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모두 비접속구성으로 확인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2ㄷ)처럼 ‘서’ 삽입이 가능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2ㄷ)에는 합성동사 ‘달려오다’도 올 수 있고 접속구성 ‘달려 오다’도

을 수 있는데 접속구성 ‘달려 오다’는 同義의 ‘달려서 오다’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의 ‘서’ 삽입 검증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즉 (2ㄷ)의 ‘달려+오다’는 ‘서’가 삽입될 수 있으므로 접속구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와 별도로 (2ㄴ)에서 확인된 합성동사 ‘달려오다’가 이 자리에 쓰인 것이라고 해도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진 문맥에서 원래의 ‘달려+오다’와, ‘서’를 삽입시켜 본 ‘달려서 오다’ 중에서 전자가 더 자연스러우면 합성동사 ‘달려오-’가 쓰인 것으로, 후자가 더 자연스러우면 접속구성 ‘달려오-’가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다음의 ‘만들어+날리다’, ‘깎아+먹다’와 같은 경우는 어떤 문맥에서도 ‘-서’의 개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 분명히 합성동사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즉 ‘달려+오다’의 (2ㄴ)과 같은 문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면 이처럼 동형의 합성동사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맥이 발견되지 않는 ‘-어’형 동사 연쇄가, 주어진 문맥에서 ‘서’ 삽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이 문맥의 ‘-어’형 동사연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3) 내가 처음 연을 만들어+날렸을(만들어서 날렸을) 때… (=1ㄱ) (접속구성 / 합성동사?)
- (4) ㄱ. 사과 깎아+먹어라 (깎아서 먹어라). (접속구성 / 합성동사?)  
 ㄴ. 껌질을 깎아+먹어야지 (깎아서 먹어야지). (접속구성)

우리는 이미 앞에서 (3)에 대해 ‘서’가 삽입 가능한 것을 들어 접속구성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앞에서 ‘달려+오다’의 예로써 말한 것처럼 ‘만들어서 날리다’가 존재한다고 해서 (3)의 ‘만들어+날리다’가 반드시 합성동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4ㄴ)의 ‘깎아+먹다’는 ‘[껌질을 깎아] 먹-’과 같이 분석되므로 합성동사일 가능성이 없지만, (4ㄱ)의 ‘깎아+먹다’는 ‘사과를 [깎아+먹-]’과 같이 분석될 가능성도 있다. (3)의 ‘만들어+날리다’의 피지시 의미를 단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만 (4ㄴ)의 ‘깎아+먹다’의 피지시 의미는 ‘만들어+날리다’의 그것에 비하면 단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11) ‘먹-’을 후행동사로 하는 ‘-어’형 연쇄들 가운데 ‘잡아먹-’은 그 피동형이 ‘[잡

우리가 '-어'형 합성동사의 형성이 어떤 일정한 조건 속에서 아주 생산적이라고 인정하고 동사 '만들다'와 '날리다' 쌍, 그리고 '깎다'와 '먹다' 쌍이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문제의 동사 연쇄가 분명한 합성동사로 쓰인 것이 어떤 문맥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현재 판단 대상이 되는 문맥 속에서는 '서' 삽입형이 가능할 때라도 위 (3)과 (4)의 '만들어+날리다', '깎아+먹다'는 최소한 임시어로서의 합성동사로 처리될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통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재 시점의 어휘 처리에서는 '-서'가 삽입될 수 있으면 접속구성이라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위 (3), (4)의 동사 연쇄들을 모두 접속구성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 3.2. 내포구성과 합성동사의 구별

위에서 본 '서' 삽입 검증법은 접속구성과 비접속구성(내포구성과 합성동사)을 구별하는 방법이었다. 나머지 내포구성과 합성동사를 구별하기 위해 제안된 기준은 '(X)V1'의 대동사화 가능성 여부와 'V1-어'만의 확대 가능성 여부이다. V1만의 확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는 V1의 대등 접속에 의한 방법을 주로 살펴 보기로 한다(김창섭 1981, 1996 : 79-80).

#### (5) [대동사화]

- ㄱ. 형은 나에게도 빙긋 웃어i 보이고 철수에게도 그래i 보였다. (내포구성)
- ㄴ. 형도 그 이야기를 들어i 보고, 나도 그래i 보았다. (내포구성 중 보조동사구성)
- ㄷ. \*철수도 그 아이를 받아i 들었고, 나도 그래i 들었다.

---

아떡]히-'가 되어 합성동사임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많은 '-어+떡-'형 연쇄가 합성동사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까+떡-', '찌+떡-', '파+떡-'.

12) 김창섭(1996)의 태도가 그러한 것이었다.

(6) ['V1-어'의 확대]

ㄱ. 형이 나에게 [웃거나 울어] 보일 때는...

형이 나에게 [빙긔 웃어] 보일 때는... (내포구성)

ㄴ. 형도 그 이야기를 [듣거나 읽어] 보았지?

형도 그 이야기를 [ќ전으로라도 들어] 보았지? (내포구성 중 보조 동사구성)

ㄷ. \*철수가 그 아이를 [받거나 거둬] 들이면 좋겠어.

\*철수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서 받아] 들이면 좋겠어. (합성동사)

'(X)V1-어'에만 적용되는 대동사화나 'V1-어'만의 확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허용하는 구조는 내포구성일 수는 있지만 합성동사일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동사화나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성동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먼저 명백한 내포구성 가운데에도 대동사화를 불허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대동사화를 불허한다고 해서 그 구성을 무조건 합성동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ㄱ.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i 있고, 제비도 그래i 있다.

ㄴ. \*학생들이 길 양 옆으로 도열해i 있고, 선생님들도 그래i 있다.

(8) ㄱ. ??철수도 그 추위를 잘 참아i 냐고, 순희도 그래i 냐다.

ㄴ. ??철수도 그 과제를 멋있게 해결해i 냐고, 순희도 그래i 냐다.

(7)의 '(-어) 있다'는 역사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보조동사(보조형용사 포함)의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논의는 아직 없었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7)에서 보는 바와같이 '(-어) 있다' 구성은 '그래' 대동사화를 거부한다. '(-어) 내다'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조동사로 알려져 있으나(따라서 내포 구성을 만든다고 여겨지나) (8)에서 보듯 '(X)V1'의 대동사화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13) '(-어) 있다'는 (9)의 대등접속을 허용하므로 내포구성을 만든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V1-어’의 확대는 흔히 그 적용 결과에 대한 해석이 선명치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 (9) ㄱ. 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앉거나 누워] 있을 때도 허리가 아팠다.  
    ㄴ. 봄이 될 때까지 이 추위를 [이기거나 견뎌] 내지 못하면…  
(10) ㄱ. 의자에 앉아 있을 때…  
    ㄴ. 이 추위를 꼭 이겨 내야 해…

(9ㄱ)에서 ‘앉거나 누워 있을 때’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를 뜻하므로<sup>14)</sup> (ㄱ)에 보인 분석의 정당성이 확인되나 (9ㄴ)의 경우는 ‘추위를 [이기거나] [견뎌+내면]’과 같은 분석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10)에서도 ‘의자에 [앉아 있을]’과 ‘[의자에 앉아] 있을’, 그리고 ‘[이 추위를 꼭 이겨] 내야’와 ‘이 추위를 꼭 [이겨 내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보조동사가 주어와 ‘…-어’의 절 이외에 자신의 논항이나 수식어 등을 가지지 못한다고 믿어져 이것이 보조동사구성과 합성동사의 구별을 위한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일부 ‘주다’ 구문은 자신의 여격어를 가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 (11) ㄱ. 형만이 [내가 지은 시를 읽어] 주었다.  
    ㄴ. 형만이 [나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11ㄱ)의 ‘주다’는 주어 ‘형만이’와 보어 ‘내가 지은 시를 읽어’를 가진 표준적인 보조동사이다. 그러나 (ㄴ)의 ‘주다’는 (ㄱ)의 ‘주다’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라는 자신의 여격어를 더 가지고 있다. (11ㄴ)의 ‘주다’가 모문 동사로서 여격어를 가지는 것은 전형적인 내포구성을 만드는 다음 (12)의 ‘보이다’들이<sup>15)</sup> 보여 주는 것과 동일하다.

- (12) ㄱ. 형이 [나에게] [사과를 깎아] 보인다.

---

14) ‘앉을 때나 누워 있을 때’와는 뜻이 다르다.

15) (12ㄱ)의 ‘보이다’는 사동사이고, (ㄴ)의 ‘보이다’는 피동사이다.



ㄴ. [나에게는] [영희가 제일 착해] 보인다.

그러므로 보조동사 구성을 내포구성의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는 보조동사가 때로 여격어 등 자신의 논항을 가진다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16)</sup>

그러나 필자 자신이 다음 예문들의 'V1-어+가다'와 'V1-어+지다'를 합성동사로 처리한 적이 있다(김창섭 1996 : 95-106).<sup>17)</sup>

(13) ㄱ. 철수가 전화로 주문해서 그 책을 자기 집에 사+갔다.

ㄴ. \*철수가 그래+갔다.

ㄷ. \*철수가 그 책을 자기 집에 [사거나 빌려]+갔다.

(14) ㄱ. 나도 오늘은 글이 잘 읽어+진다.

ㄴ. ?나도 오늘은 그래+진다.

ㄷ. \*오늘은 글이 잘 [읽거나 외워] 진다.

---

16) 그래서 김창섭(1996 : 80 주7)에서는 보조동사 구성을 내포구성의 하나로 보았다. '...-어'절을 보조동사의 보어로 보는 견해를 명확히 한 글로는 박진호(1998)이 있다.

17) 이곳의 '가다'는 '달려가다'와 같이 합성동사를 만드는 '가다'나 '한 달에 한 번씩 잤아 간다'의 時相的 의미의 보조동사 '가다'와는 달리 V1의 동작에 移動과 方向의 의미를 더해 주는 특별한 것이다. (13ㄱ)에서도 '간'것은 철수가 아니라 '책'이다. 같은 경우의 '오다'도 있다. "철수가 전화로 의사를 집에 불러왔다"에서 '온'것은 철수가 아니라 의사이다.

이곳의 '지다'는 일단 형용사를 V1으로 하는 '지다'와 구별해서 생각하기로 한다. 형용사를 V1으로 하는 '지다'는 대동사화와 대등접속을 허용하며 목적어에서 바뀐 듯한 주어도 없으므로(즉 문장의 논항구조를 바꾸지 않으므로) 보조동사임이 분명하다: ㄱ. 커튼을 치우니 방이 밝아졌다, 복도도 그래질까? ㄴ. 음식이 [맵고 짜]졌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동사를 V1으로 하는 '지다'와 형용사를 V1으로 하는 '지다'를 동일한 보조동사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뜨리다'에 대응하는 '지다'는 보조동사(보문의 모문 동사)로 볼 수 없다. 김창섭(1996 : 106-111) 참고.

그것은 첫째, ‘가다’, ‘주다’의 동사연쇄들이 (13), (14)의 (ㄴ, ㄷ) 예문들에서 보듯 대동사화도 대동접속도 모두 거부한다는 사실을 성급하게 ‘가다’, ‘주다’가 보조동사가 아니라는 증거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V1-어+가다’와 ‘V1-어+지다’는 합성동사일 가능성만 남게 된다. 또, (13ㄱ)의 ‘자기 집에’나 (14ㄱ)의 ‘글이’와 같은 V1의 논항일 수 없는 여격어와 주어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이 동사연쇄들이 합성동사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문제의 동사연쇄가 내포구성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일 수 없다. (13ㄱ)의 ‘자기 집에’와 (14ㄱ)의 ‘글이’에 대해서도 각각 V2인 ‘가다’와 ‘지다’의 논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제의 ‘가다’와 ‘지다’의 높은 생산성은 이들이 보조용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가다’는 타동사인 V1의 영향을 받은 대상(V1의 목적어)이 장소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언제든 쓰일 수 있고,<sup>18)</sup> ‘지다’는 ‘V1의 이루어짐’ 여부가 초점이 되는 맥락에서는 쉽게 쓰일 수 있다.<sup>19)</sup> 이들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거의 완전한 생산성을 가진다. 또, 이들이 ‘X하다’형 동사를 V1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들이 보조용언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X하다’형의 동사들은 합성동사의 V1으로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포구성의 V1으로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김창섭 1996 : 87).<sup>20)</sup>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X거리다’형 동사도 마찬가지이다.<sup>21)</sup> 마지막으로 이들이 새 단어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단어의 어떤 용법을 만든다고 느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V1-어+가다’와 ‘V1-어+지다’가 합성동사인지 아니면 내포구성인지를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휘처리의 대상이 되었을 때

18) 김창섭(1998 : 98) 참고.

19)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밥이 먹어지니?”, “목이 폐어 이젠 더 울어지지도 않아.”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김창섭(1996 : 106) 참고.

20) 다음의 예문을 참고할 것.

ㄱ. 철수가 그 책을 동생을 시켜 자기 집에 구입해+왔다.

ㄴ. 교장 선생님이 사람을 보내 학교에 연사를 초빙해+왔다.

ㄷ. 處해+지다, 傳해+지다, 습해+지다, 加해+지다

21) “자꾸 눈이 깜박거리+진다”와 같은 예문을 참고할 것.

는 일단 내포구성으로 보는 편을 택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필자는 위의 두 가지 구별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법을 하나 제안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X하다’형 동사(형용사 포함)나 ‘X거리다’형 동사들은 ‘-어’형 합성동사 형성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통사론적 구성(내포구성 포함)에는 제한 없이 참여한다는 사실로부터 ‘-어’형 동사연쇄에서는 통사론적 구성만이 ‘X하다’형 동사나 ‘X거리다’형 동사를 V1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X하다’형 동사란 ‘걱정하다, 조사하다, 휴식하다, 구하다, 행복하다, 단순하다, 따뜻하다, 순하다’와 같은 것들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들을 한 단어로 보지 않고 ‘X’와 ‘하다’의 두 단어로 된 동사구로 보고 있다.<sup>22)</sup> 만일 그렇다면 ‘X하-어+V2’는 통사부에서 만들어진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통사론적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X하-어+V2’가 어휘부에 존재하는 단어라면 본고의 이 구별 기준의 성격에 대해 어떤 명확한 문법적인 설명을 베풀기가 어려워진다. ‘흔들거리다’, ‘집적거리다’와 같은 ‘X거리다’들은 일반적으로 어휘부에 존재하는 동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 기준이 ‘X하다’, ‘X거리다’ 동사들의 어떤 문법론적 성격과 관련된 근거를 가지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기준의 문법론적인 정당화는 후일의 숙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다음의 (15)는 ‘-어’형 합성동사와 내포구성을 구별할 때, V1에 ‘X하다’형 동사를 허용하면 내포구성이라는 우리의 기준을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동사연쇄들에 적용한 결과이다. ‘V1-어+대다’의 경우에는 ‘X하다’ 검증만으로 확실하지 않아 ‘X거리다’ 검증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래’ 대동사화에

---

22) ‘공부하다, 請하다, 행복하다, 깨끗하다, 順하다’ 등은 동사인 것과 형용사인 것, 어기가 단어(명사)인 것과 단어가 못되는 것, 어기 분리가 가능한 것(“행복도 하다”, “깨끗도 하다” 등)과 불가능한 것(\*“請들 했니?”, \*“順도 하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위 예들 가운데 ‘공부하다’만을 목적어와 동사의 두 단어로 보는 이도 있고, 이들 모두 다를 두 단어로 보는 이도 있으며, 그 중간 단계를 취하는 이도 있다. 세부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으나 서정수(1975), 김영희(1986), 고재철(1988), Hee-Don Ahn(1991), Kabyong Park(1992), 정원수(1992), 시정곤(1994), 채희락(1996) 등은 최소한 ‘공부하다’를 두 단어로 보고 있다.

의한 구별보다도 이 새 기준에 의한 구별이 학교문법과 같은 현재의 통상적인 견해와 더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15)

V2	기존 견해	동사 연쇄 예	'그래' 대동사화 검증	'X하다', 'X거리다' 검증	판정
1 있다 /계시다	shb /sh	누워+있다	*그래 있다	堵列해 있다, 起立해 있다	내포
2 보이다	d	웃어+보인다	그래 보인다	微笑해 보인다, 試演해 보인다	내포
3 보이다	sd	슬퍼+보인다	그래 보인다	憂鬱해 보인다, 幸福해 보인다	내포
4 버리다	cshdbg <sup>1</sup>	잊어+버렸다	그래 버렸다	忘却해 버렸다, 拋棄해 버렸다	내포
5 가다1	cshdbg <sup>1</sup>	마쳐+간다	그래 간다	完成해 간다, 點檢해 간다	내포
6 오다1	cshdbg <sup>1</sup>	이겨+왔다	그래 왔다	勝利해 왔다, 努力해 왔다	내포
7 보다	cshbdg <sup>1</sup>	마셔+볼까	그래 볼까	試飲해 볼까, 調查해 볼까	내포
8 주다 /드리다 /달다	cshdbg <sup>1</sup> /csd /h	도와+주면 도와+드리면 도와+다오	그래 주면 그래 드리면 그래 다오	援助해 주면, 容恕해 주면 援助해 드리면, 容恕해 드리면 援助해 다오, 容恕해 다오	내포
9 두다	cshbg <sup>1</sup>	읽어+두면	그래 두면	精讀해 두면, 暗記해 두면	내포
10 놓다	cshdg <sup>1</sup>	고쳐+놓으니	그래 놓으니	修理해 놓으니, 整理해 놓으니	내포
11 내다	cshdbg <sup>2</sup>	길러+냈다	??그래 냈다	育成해 냈다, 解決해 냈다	내포
12 먹다	hdg <sup>2</sup>	부려+먹고	*그래 먹고	利用해 먹고, 橫領해 먹고	내포
13 가지고	csh	예뻐+가지고	그래 가지고	깨끗해 가지고, 過食해 가지고	내포

23) (15)의 '기존 견해'란에 쓴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c : 최현배(1975/1937), 우리말본, 정음사.

s : 고영근·남기십(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h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b :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g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g<sup>1</sup>(후행보조동사 구성 1), g<sup>2</sup>(후행보조동사 구성 2), g<sup>3</sup>(유사보조동사 구성 1), g<sup>4</sup>(유사보조동사 구성 2)는 동사연결의 출현빈도가 높은 순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 중에서 g는 보조용언(또는 의존적인 V2)의 총목록을 구하여 얻어진 것이고, 그 외는 논의 가운데 보조용언의 예로 들어진 것들이다.

14	지다1	csdbh	밝아+졌다 외워+진다	그래 졌다 ?그래 진다	환해 졌다, 캄캄해 졌다, 加해 진다, *暗記해 진다	내포
15	하다		추워+한다	*그래 한다	幸福해 한다, 痛快해 한다	내포
16	버릇하다		참아+버릇하면	그래 버릇하면	걱정해 버릇하면, 遲刻해 버릇하면,	내포
17	가다2		사+갔다	?그래 갔다	購入해 갔다, 暗記해 갔다	내포
18	오다2	b	불러+왔다	?그래 왔다	招聘해 왔다, 購入해 왔다	내포
19	쌍다	csh	올어+쌍니	그래 쌍니	不平해 쌍니, 辨明해 쌍니	내포
20	대다	cshdg <sup>1</sup>	떠들어+댄다	*그래 댈다	電話해 댈다,  짐적거리 댈다	내포
21	빠지다	hdg <sup>2</sup>	낱아+빠진	*그래 빠진	純眞해 빠진, 虛弱해 빠진	내포
22	터지다	hdg <sup>3</sup>	좁아+터졌지	*그래 터졌지	順해 터졌지, ?優柔不斷해 터졌지	내포
23	나가다	hdg <sup>2</sup>	값아+나가면	그래 나가면	清算해 나가면, 說得해 나가면	내포
24	나오다	g <sup>2</sup>	(한칸 한칸)닥 아+나와	*그래 나와	(한 장 한 장)漆해 나와, (한 방 한 방)消燈해 나와	내포
25	바치다	chg <sup>3</sup>	일러+바쳤다	?그래 바쳤다	告해 바치다,  고자질해 바쳤다	내포
26	올리다	h	읽어+올리면	*그래 올리면	報告해 올리면, 紹介해 올리면	내포
27	들어가다	g <sup>2</sup>	타+들어가서	*그래 들어가서	侵蝕해 들어가서, 腐蝕해 들어가서	내포
28	들어오다	g <sup>2</sup>	타+들어와서	*그래 들어와서	侵蝕해 들어와서, 腐蝕해 들어와서	내포
29	젓히다 (제치다)	hg <sup>3</sup>	불러+젓히고	*그래 젓히고	*熱唱해 젓히고, *開放해 젓히고	합성
30	떨어지다	h	지쳐+떨어졌다	*그래 떨어졌다	*氣盡해 떨어졌다, ?除해 떨어진다	합성
31	치우다	hg <sup>3</sup>	팔아+치위	??그래 치위	?探點해 치위, *整理해 치위	합성
32	나다	cdg <sup>2</sup>	자라+난다	*그래 난다	*成長해 난다, *出現해 난다	합성
33	내리다	h	써+내린다 무너져+내린다	*그래 내린다	*記錄해 내린다, *朗讀해 내린다 *崩壞해 내린다, *鎔解해 내린다	합성
34	붙이다 (부치다)	g <sup>3</sup>	밀어+붙여	*그래 붙여	*壓迫해 붙여, *推進해 붙여	합성
35	치다	g <sup>4</sup>	볶아+쳤다	*그래 쳤다	*	합성
36	들다	g <sup>4</sup>	남아+돈다	*그래 돈다	*	합성
37	돌아가다	g <sup>4</sup>	남아+돌아간다	*그래 돌아간다	*	합성
38	넘어가다	g <sup>4</sup>	속아+넘어갔다	*그래 넘어갔다	*	합성
39	넘기다	g <sup>4</sup>	속여+넘겼다	*그래 넘겼다	*	합성
40	지다2		부서+졌다	*그래졌다	*	합성
41	뜨리다		부서+뜨렸다	*그래뜨렸다	*	합성

위의 ‘하다’는 “미워도 싫어도 안 해”와 같은 예문이 성립하므로 통사적 구성을 만드는 것인데, ‘-서’ 삽입을 거부하므로 내포구성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허철구(1998)에서 내포문 구성의 모문 동사로 논증된 바 있다.<sup>24)</sup> 우리의 검증에서도 ‘행복하다’와 같은 ‘X하다’를 ‘V1’으로 가질 수

있어 ‘행복해 하다’, ‘추워 하다’, ‘무거워 하다’ 등이 합성동사가 아니라 내포구성임을 알 수 있다.<sup>25)</sup>

‘버릇하다’는 이희승 편(1982) 등의 사전에 이미 보조동사로 올려진 것이다. “철수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와 같은 예문의 ‘오다’와 “철수가 전화로 의사를 불러왔다”와 같은 예문의 ‘오다’는 하나의 모문 동사 ‘오다2’로 보았다. 그리고 ‘(전화를)걸어오다’에 대응되는 ‘\*(전화를)걸어가다’는 존재하지 않지만<sup>26)</sup> ‘불러오다’에 대응되는 ‘불러가다’는 존재한다. ‘가다2’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국어에서 내포문의 모문 동사의 집합이 제한된 것인가 개방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다의어적 발달에서 개방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너무 깨끗해 놓아서”와 같은 용법을 위 10번 ‘놓다’와 별개의 것으로 항목화할 것

---

24) 다음은 허철구(1998 : 132)에서 ‘좋아하다’가 어휘화하기 전 발생단계에서 가졌던 기저구조로 상정된 것이다.

[S<sub>2</sub> 철수는<sub>i</sub> [VP 영이를<sub>i</sub> [S<sub>1</sub> e<sub>i</sub> e<sub>j</sub> 좋아] 하]-는다]

25) 허철구(1998 : 127)에서는 이 내포구성 가운데 일부가 어휘화하여 하나의 단어로 된 것도 있다고 하고 다음을 예로 들었다 : 좋아하다, 싫어하다, 기뻐하다, 슬퍼하다, 무서워하다, 예뻐하다, 미워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단어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자 한다.

‘말다’도 ‘하다’에 평행하게 내포구성의 모문동사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예가 있다 : 너무 좋아/기뻐/슬퍼/무서워 말아라, 싫어만 말고, 아이들을 예뻐만 말고, ?그 사람을 미워만 말고.

김창섭(1996 : 110)에서는 ‘넘겨 주다’에의 유추에 의해 ‘넘겨받다’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받다’를 모문 동사로 보지는 않았지만, ‘받다’도 내포구성의 모문동사일 가능성이 있다.

나는 [형에게서] [헌책을 넘겨] 받았다.

우리는 이미 “글이 읽어진다”의 ‘글이’에 대해서 V2인 ‘지다’의 논항으로 보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 예문의 ‘형에게서’를 ‘헌책을 넘겨’와 함께 ‘받다’의 논항으로 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 ‘받다’가 취할 수 있는 ‘V1’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 넘겨받다, 傳해 받다, 傳達해 받다, 引繼해 받다, 相續해 받다, \*던져 받다, \*남겨 받다. ‘받다’가 ‘-어’형 내포문을 만들더라도 그 생산성은 ‘말다’보다도 더 작을 것이다.

26) 박양규(1987)을 참고할 것.

인가? 또 전혀 새로운 동사를 이 집합에 추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연구될 문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sup>27)</sup> 현재로서는 (15)와 같은 구별법을 적용하여 '-어'형 동사연쇄들을 합성동사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작업의 결과는 이 글의 부록1로 보일 것이다.<sup>28)</sup>

---

27) 최현배(1975)에서 보조동사로 든 '닥아'는 제외하였다. 그것은 '닥아'에 가장 비슷하다 할 '가지고'는 본동사의 뒤에 일부 특수조사를 허용하나 '닥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잡아를 가지고", "\*잡아를 닥아(다가)." 'V1-어'가 2음절 이상이기만 하면 그 뒤에 일부 특수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내포구성과 합성동사 모두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28) 동사구 내포문은 완형보문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 몇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형 내포구성만을 다루었는데 이 '-어'형 내포구성 안에서 보조동사 구성을 따로 구별해 낼 통사론적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조동사는 곧 '-어'형 내포구성을 만드는 모분동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조동사가 본동사의 서술을 보조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 4. 'X하다'의 내부 변화

제3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X하다'형 동사(형용사 포함)란 명사 또는 어근에 '하다'가 결합한 것인데(예 : 걱정하다, 구하다, 행복하다, 따뜻하다), 많은 학자들이 이들을 한 단어로 보지 않고 'X'와 '하다'의 두 단어로 된 동사구로 보고 있다. 필자도 엄밀히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X하다'형 동사들이 사실은 구이거나 혹은 합성동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는 '求'나 '따뜻' 등도 단어로 처리해야 하고 품사 분류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없는 현재로서는 일단 학교문법을 따라 '하'를 파생접미사로 보고 'X하다'동사들을 파생동사로 보는 편을 택하고자 한다.

어휘 자료 처리에서 'X하다'형 동사들과 관련되어 제기될 문제의 하나는 때로는 'X하...'가 기대되는 자리에 'X'만이 나타나는 자료와, 'X하다'의 내부에 일부의 조사나 부사가 개입한 듯이 보이는 자료의 해석이다. 전자는 본장의 4.1에서, 후자는 4.2에서 다루기로 한다.

### 4.1. '하...'의 생략과 어기 분리

국어에서 동사(형용사, '-이다' 포함)들은 반드시 어간에 어말어미가 결합되어 쓰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는 어미가 없는 어떤 형식이 어말어미까지 갖춘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sup>29)</sup>

- (1) ㄱ. 형태가 단순. (단순함/단순하다...)
  - ㄴ. 형태는 단순, 조작법은 간단. (단순하고/단순하며/단순하나...)
  - ㄷ. 새 제품은 형태가 단순, 오래 옆에 두고 써도... (단순하여/단순하므로...)
- (2) ㄱ. 형은 늘 아우를 자랑. (자랑함/자랑한다...)
  - ㄴ. 형은 아우를 자랑, 아우는 형을 자랑. (자랑하고/자랑하나...)

---

29) 자세한 것은 김창섭(1996 : 191-4)와 김창섭(1998)을 참고.



ㄷ. 형은 감독을 만날 때마다 늘 아우를 자랑, 감독에게 자기 아우에 대한... (자랑하여)

(1)과 (2)의 ㄱ, ㄴ은 신문의 제목이나 요약문 등에서 볼 수 있는 문장들이며 ㄷ은 신문 기사문 등 특수한 문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형이다. ‘단순’, ‘간단’, ‘자랑’은 얼핏 보아 어근 혹은 명사처럼 보이는 형식들이 어떤 어미도 없이 文末이나 接續節末에 쓰여 훌륭히 서술어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괄호 속에 보인 것과 같은 ‘X하다’형의 동사가 대응한다. ‘하다’ 외에 다른 어떤 접미사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사는 어미를 갖추어 사용된다는 국어 동사 형태론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위 서술어들이 사실은 접미사 ‘하’의 零異形態와 零形態素인 어말어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위에서 ‘단순’을 예로 들자면 그것은 그냥 어근이 아니라 형용사 ‘단순하다’의 한 활용형인 ‘단순-0-0’으로 해석된다.

이제 지금까지 흔히 부사가 서술어처럼 쓰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다음 (3)의 ‘병긋’과 ‘파릇파릇’도 각각 ‘병긋하-’, ‘파릇파릇하-’의 異形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0)</sup>

(3) ㄱ. 철수는 누나를 보자 저절로 입이 병긋, 합격한 것을 숨길 수가...

ㄴ. 나뭇잎마다 이미 파릇파릇, 봄이 한가운데 왔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병긋하-’, ‘파릇파릇하-’의 異形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저 단순히 부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다음 (4)의 그것들은 현재로서는 일단 부사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4) ㄱ. 철수는 누나를 보자 저절로 입이 병긋 벌어졌다.

ㄴ. 길가에 새 싹이 파릇파릇 돌아났다.

그런데 이렇게 ‘X하다’형 동사가 여기 활용형(‘X-0-0’)으로 나타나려면 어기 ‘X’가 1음절짜리이어서는 안 된다. 어기가 2음절 이상이어야 여기활용이

---

30) 자세한 것은 김창섭(1998) 참고.

가능하다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는 것이다.

(5) ㄱ. \*조작법이 便.

ㄴ. \*새 제품은 조작법이 便, 어린이들에게...

(6) ㄱ. \*소비자들의 요구에 應.

ㄴ. \*소비자들의 요구에 성실히 應, 조작법이 간단한...

이와 같이 음절수라는 음운론적 제약이 걸려있다는 사실은 여기 활용형의 형성이 통사론적인 것이기보다는 형태론적인 현상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절수의 제약을 받는 통사규칙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X하다'형 동사들의 어기 'X'와 접미사 '-하-' 사이에는 또 어기분리[임홍빈(1979)의 용어로는 '어근분리']라 불리는 또다른 단어 내 변화가 있다.

(7) 모양이 단순{들/도/은/만/좀/안/못} 하구나/한테/하고/하다고/해...

(8) 조작법이 \*便{들/도/은/만/좀/안/못} 하구나/한테/하고/하다고/해...

(7), (8)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근과 접미사 '-하...'가 일부의 특수 조사나 접어적 형식 '안-', '못-', '-좀' 등에 의해 분리되는 단어 내 변화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어기 분리는 'X하다' 동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9) ㄱ. 자, 덤벼들+들어라.

ㄴ. 놈들이 나타만+나면 나에게 말해라.

ㄷ. 잡아들+먹혔어요. (참고 : [잡아먹]히-)

(10) 빌빌들+거리지 말아라.

빌빌도+대는구나.

(11) 어른도+스럽다!

제2장에서 본 '-어'형 합성동사들, 'X거리다/대다'형 파생동사들, 어떤 경우에는 'X스럽다'형 파생형용사에서도 어기분리가 일어난다.<sup>31)</sup> '-어'형 합성동

사의 경우에는 (9ㄴ)에서 보듯이 폐어가 되어 공시적으로는 의미를 알 수 없게 된 형식 ‘나타’의 뒤에서도 분리되고 (9ㄷ)에서 보듯이 형태·의미론적 분석과는 상관없이<sup>32)</sup> 이음절 이상이라는 조건과 ‘-어’ 뒤라는 조건에만 맞으면 분리된다. 또, 이들에서도 ‘X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 어기가 이음절이면 어기분리가 일어나지 못한다: “\*과들+묻어라”, “\*촌도+스럽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기분리가 통사론적 현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기 활용형이나 어기분리된 이러한 자료들을 처리할 때, 접미사의 어기(‘X하다/거리다/대다/스럽다’의 ‘X’)나 ‘-어’형 합성동사의 선행어기(‘V1-어’)만을 한 단어로 취급한다든가, ‘하...’/‘거리...’/‘스럽...’이나 분리된 후행성분 ‘V2...’ 등을 한 단어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어기활용형 ‘X-0-0’은 ‘X하다’의 한 활용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4.2. ‘X하다’와 ‘X를+하다’

우리는 4.1.에서 ‘X하다’형 동사들이 어기분리되더라도 분리 전의 형식을 한 단어로 보고 개제된 조사나 ‘안’, ‘좀’ 등을 별도의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X하다’가 동작동사이며 동작명사로서의 ‘X’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X를/는/도...+하다’가 ‘X하다’의 어기분리형인지 아니면 명사 ‘X’와 타동사 ‘하다’로 만들어진 구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12) 그 사람들이 행복을+하다고?

(13) ㄱ. 하루 종일 공부를+했어.

ㄴ. 하루 종일 수학만 공부를+했어.

31) ‘X거리다’, ‘X대다’의 어기분리에 대해서는 이병근(1986) 참고. 허철구(1998)에서는 ‘X하다’형 동사, ‘-어’형 합성동사, ‘좋아하다’류에서의 어기분리를 공시 및 통사론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바 있다.

32) ‘잡아먹히다’는 ‘잡다’와 ‘먹히다’의 합성이 아니라 ‘잡아먹다’가 피동화 접미사 ‘-히-’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12)는 물론 여기 분리의 예이다. 형용사 ‘하다’가 있어서 그것이 명사 ‘행복’을 목적어로 가진다고 보는 것은 현재의 이론으로는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13)의 서술어들도 (12)의 그것처럼 여기분리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독립된 동사로서의 타동사 ‘하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어로 하고 ‘하다’를 동사로 한 동사구일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분리설과 동사구설은 현재도 국어 문법의 쟁점이 되어 있어 여기에서의 결론은 유동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어휘 자료 처리라는 실제 작업에서는 보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어느 편이든 하나를 택하여야 할 텐데 본고에서는 홑目的語 構文인 (13ㄱ)의 서술어는 동사구로, 겹目的語 構文인 (13ㄴ)의 서술어는 여기분리된 한 동사로 보고자 한다. (13ㄴ)처럼 이른바 겹목적어 구문의 서술어 ‘X를+하다’를 여기분리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임홍빈(1979)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 경우의 ‘X’는 ①관형어를 가지지 못하고, ②관계문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고, ③‘-음’으로 명사화된 보문으로 대치될 수도 없으며, ④대명사화될 수도 없고, 뒤따르는 ‘하다’ 앞에 부사를 허용하지도 않으므로 ‘X하다’의 어근이라고 본 것이다.<sup>33)</sup> (13ㄱ)과 같은 환경의 ‘X를+하다’(‘를’은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으므로 ‘X+하다’도 마찬가지이다)는 구와 단어의 두 가지 신분이 다 가능한데, 특별히 단어라고 볼 이유가 따로 없다면 구로 보는 것이 문제를 단순화하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X+하다’의 처리 문제가 다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국어의 어떤 부류의 ‘X하다’형 동작동사는 ‘X하다’형 상태동사(즉 형용사)처럼 ‘X’와 ‘하다’ 사이에 앞에서 본 일부 특수조사와 특수한 부사만을 허용하여, 이 면에서는 ‘X하다’형 상태동사와 같고 ‘X+하다’형 타동사와 다른 행동을 보여 준다.

33) 중세국어에 관한 것이지만, 이현희(1994)에서도 예컨대 앞에 따로 목적어를 가지는 ‘시름ㅎ다’는 형태론적 구성이라고 하였다(278). 이 때는 ‘시름을 ㅎ다’와 같은 통사론적 구성은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279). “너가는 길희 어려우물 시름 아니ㅎ노라”(두초 17:12)의 ‘시름 아니ㅎ노라’는 ‘시름ㅎ다 아니ㅎ노라’에서 ‘ㅎ다’가 수의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280).

- (14) ㄱ. 모양이 단순(들/은/을/도)+하지만…  
 ㄴ. 모양이 단순+않고… (= ‘단순+안+하고’)  
 ㄷ. 모양이 단순 {\*아주/\*좀/\*그렇게…} 하지만…
- (15) ㄱ. 그 경우에 해당들/은/을/도)+하지만…  
 ㄴ. 그 경우에 해당+않고… (= ‘해당+안+하고’)  
 ㄷ. 그 경우에 해당 {\*꼭/\*정확히/\*어느 정도/\*일면} 하지만…

‘단순하다’는 상태동사이고 ‘해당하다’는 동작동사라는 차이가 있지만 (14), (15)에서 보는 바는 이 둘이 어기분리에 있어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앞에서 말한 임홍빈(1979)의 검증법을 적용하면 이곳의 ‘해당’은 접목적어구문의 ‘공부’와 같은 행동을 보여 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3ㄴ)의 ‘공부를+하다’와 같이 (15)의 ‘해당을+하다’도<sup>34)</sup> ‘해당하다’가 조사 ‘을’에 의해 어기분리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제 문제는 ‘해당하다’류를 한정하여 부류를 정의하고 그 목록을 제시하는 일이다. 먼저 ‘X’가 외견상 명사와 비슷할지라도 실제로는 부사라든가 명사로 쓰이지 못하는 잠재적인 명사 혹은 어근이면 그 ‘X’가 명사(동시에 단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하다’의 목적어로 인정될 수 없다. 물론 그 경우의 ‘X들/를/도…+하다’도 동사구로 인정될 수 없다.

- (16) 거듭하다, 고작해서, 깜박하다, 꿈틀하다, 슬쩍하다, 이룩하다, 操心操心하다, 고생고생하다, 불문곡직하다…
- (17) 맞이하다, 갈음하다[代], 가름하다[分]…
- (18) 이룩하다, 주춤하다, 비릇하다, 골몰(汨沒)하다, 기진(氣盡)하다, 생동(生動)하다, 식사(食傷)하다, 당황(唐惶)하다, 선행(先行)하다

(16)은 ‘X’가 부사인 경우이고, (17)은 ‘X’가 잠재어로서의 명사인 경우이며, (18)은 ‘X’가 어근인 경우이다.

‘X’가 명사(동시에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타동사 ‘하다’의 목적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4) ‘해당{들/은/을/도)+하다’가 다 마찬가지로이다.

(19) 구체화하다, 극대화하다, 근대화하다, 산업화하다, 습관화하다, 일반화하다, 장기화하다, 체질화하다, 최소화하다, 특수화하다, 합리화하다, 현실화하다, 형식화하다…

(20) ㄱ. 개재하다, 경직(硬直)하다, 만연하다, 밀집하다, 배가하다, 병행하다, 신장(伸張)하다, 융화(融和)하다, 유래(由來)하다, 해당하다…

(21) ㄴ. 감사하다, 고립하다, 관련하다, 기존(既存)하다, 부재(不在)하다, 불멸(不滅)하다, 불변(不變)하다, 소재(所在)하다, 즈음하다…

(19)의 ‘…化하다’형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타동사(사동사)와 자동사(주동사)로 다 쓰일 수 있는 능격동사가 된다.

(22) ㄱ. 그 방식을 일반화했다.

ㄴ. 그 방식을 일반화를+했다.

(23) ㄱ. 그 방식이 일반화했다.

(비교 : 그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ㄴ. 그 방식이 {널리, 쉽게, 다시, …} 일반화를 했다.

ㄷ. 그 방식이 일반화를 \*{널리, 쉽게, 다시, …} 했다.

이들이 타동사로 쓰일 때는 앞 (13ㄴ)의 예문으로 말했듯이 어기분리되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한 바 있다. 즉 (22)의 ㄱ과 ㄴ은 똑같이 타동사 ‘일반화하다’를 가진 것으로서 ‘일반화를+했다’는 ‘일반화하다’가 어기분리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23)과 같이 이들이 자동사로 쓰일 때이다. 이 때 이들은 대개 ‘X되다’와 거의 동의어가 되는 듯하다. 이렇게 자동사로 쓰인 ‘…化하다’ 동사들은 (23) ㄴ과 같이 ‘X’와 ‘하다’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있어도 ㄷ과 같이 그 사이에 어기분리 요소 외에 다른 부사어가 개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의 ‘X’(예 : ‘일반화’)도 (13) ㄴ의 ‘공부’에 적용했던 임홍빈(1979)의 검증법에 똑같은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23) ㄴ의 ‘X(를)+하다’도 하나의 동사(그리고 조사 ‘를’)로 보아야 한다.

(20)의 ㄱ은 ‘X되다’와 거의 동의가 된다는 점에서 (19)의 자동사로서의 ‘…化하다’와 성격이 같다. 그리고 (23)으로 검증했던 바가 (20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임흥빈(1979)의 검증법에도 똑같은 결과를 보인다.

(24) ㄱ. 그 놀이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에서 유래하였다.

(비교 : 그 놀이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에서 유래되었다.)

ㄴ. 그 놀이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를 했다.

ㄷ. 그 놀이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에서 유래를 \*직접적으로 했다.

(20)의 ㄴ은 동의의 ‘X되다’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외의 점에서는 (20) ㄱ과 같다.

그러므로 (19)-(21)의 ‘X하다’들은 모두 단지 어기분리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지 ‘X를 … 하다’형의 동사구 형성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들의 ‘X를/도/들+하다’는 모두 ‘X하다’라는 동사와 조사 ‘를/도/들’로 분석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들 (19)-(21)류의 동사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이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자동사이기는 하지만 자동사라고 해서 모두 ‘X를 … 하다’의 대응하는 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휴식하다 : 휴식을 알맞게 하다’, ‘멸망하다 : 멸망을 언제 하다’와 같이 자동사이면서 대응 동사구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방면의 연구를 수행할 여유는 가지지 못한다.<sup>35)</sup> 다만 부록2에 대응 동사구 ‘… X(를) … 하다’를 가지지 못하는 ‘X하다’형 동사들의 목록을 가능한 한 풍부하게 들어보이기로 한다.

---

35) 대격구문을 만드는 동사들의 규정에 제안되었던 ‘행위성’, ‘통제성’, ‘결정성’과 같은 자질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5. 마무리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대표적인 통사적 합성어인 ‘명사+명사’ 형의 합성명사와 ‘동사어간-어+동사어간’ 형의 합성동사의 구조를 살펴 보면서 그것들과 동형의 구와의 구별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또 그 정체에 대해 합성어와 파생어 그리고 구로 이견이 분분한 ‘X+하다’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이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기로 한다.

2.1.에서는 주어진 문맥 속에서 두 명사의 연쇄 ‘[A]<sub>N</sub>+ [B]<sub>N</sub>’가 합성명사인 가 명사구인가를 가리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A+B’가 어떤 개념에 결부되어 그 개념의 이름으로 쓰이면 그것은 합성명사이다. 이때 ‘A’는 이름의 구성요소이므로 ‘B’와 별도로 어떤 통사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세계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시할 수도 없다. 반면에 ‘A’가 ‘B’를 기술하는 수단으로 선택되었다면 ‘A+B’는 명사구이다. 이 때는 ‘A’는 ‘B’와 별도로 통사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세계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시할 수도 있다. 특히 국어 문법 체계에서는 ‘A’가 ‘B’의 형상, 재료, 수단·방법을 나타낼 때는 ‘A’가 ‘B’를 기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될 수 없고 어떤 개념의 이름 요소로 쓰일 뿐이므로 그 ‘AB’는 합성명사로 판정된다.

2.2.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 위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A+B’의 의미가 비합성적이면 ‘A+B’를 합성명사로 판정하는 기준이 사용되고 있으나, 의미의 비합성성 자체는 관용어의 징표이지 합성어의 징표가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 함을 말하였다. 고유명의 예로 ‘한국대학교 사회대학’을 들어 고유명 합성명사인 ‘한국대학교’가 합성명사인 ‘사회대학’을 기술하여 전체적으로 명사구가 되었다고 보았다. ‘A’가 추상명사인 경우로 ‘교통+X’형의 연쇄들에 대해서도 합성명사와 구의 구별을 시도해 보았다.

3.1.에서는 ‘-어’형 동사연쇄의 처리에서 접속구성과 비접속구성(합성동사와 내포구성)의 구별 문제를 다루었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주어진 문맥 속의 ‘-어’형 동사 연쇄가 ‘서’ 삽입을 허용하지 않



으면 그것은 합성동사이거나 내포구성이다.

(2) 어떤 주어진 문맥 속의 '-어'형 동사 연쇄에 대해 '서' 삽입이 허용될 때(또는 '서' 삽입형이 병존할 때)

ㄱ. 문제의 동사 연쇄가 다른 문맥 속에서 합성동사로 존재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접속구성으로 처리한다.

ㄴ. 문제의 동사 연쇄가 다른 문맥 속에서 합성동사로 존재함이 확인된다면 ①주어진 문맥 속에서 '-어'형과 '서' 삽입형 가운데 전자가 더 자연스러우면 합성동사로 처리하고, ②후자가 더 자연스러우면 접속구성으로 처리한다.

'-어'형 동사연쇄가 접속구성과 비접속구성으로 구별되고 나면, 비접속구성을 다시 내포구성과 합성동사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된다. 3.2.에서는 다음 (3)과 같이 기왕에 제안되었던 이 구별의 기준들을 평가하고 그에 추가하여 (4)의 새로운 기준을 실제적인 것으로 제안하였다.

(3) 명백한 내포구성 가운데에도 대동사화를 불허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대동사화를 불허한다고 해서 그 구성을 무조건 합성동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V1-어'의 확대의 적용 결과를 판정할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4) '-어'형 동사연쇄에서는 통사론적 구성만이 'X하다'형 동사나 'X거리다'형 동사를 V1으로 할 수 있다.

4.1.에서는 'X하다'형 동사들(형용사 포함)에서 보이는 '하...' 생략과, 어기 'X'와 접미사와 후속어미 '-하...'의 분리를 다루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X하다'형 동사들의 '하...' 생략형(어기활용형)은 'X-0-0'으로서 첫번째 영형식은 접미사 '-하-'의 이형태이고, 두번째 영형식은 어말어미의 하나이다. 따라서 '하...'생략형은 'X하다'의 한 활용형으로 처리한다.

(6) 'X하다'형 동사들의 어기 'X'와 접미사와 그 후속어미가 분리된 'X{를/

는/도/들/만/안/좁...)+하다'는 'X하다'라는 한 동사와 조사, 부사 '를/는/도/들/만/안/좁...'으로 분석한다. (예 : '건강을 하다'는 '건강하다'와 '을'로 분석한다.)

(-어'형 합성동사도 'V1-어'와 'V2'의 사이에서 어기분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타만 나면'은 '나타나면'과 '만'으로 분석한다.)

4.2.에서는 동작동사인 'X하다'와 그에 대응하는 'X를 (...) 하다'의 관계를 다루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ㄱ. 'X'외에 다른 목적어가 될 만한 성분이 없고, 그 때의 'X'가 임흥빈(1979)의 검증에서 어기로 판명되면('X'가 부사, 잠재적 명사, 어근인 경우를 포함) 'X{를/도/들/좁...} 하다'는 자동사 'X하다'와 조사 혹은 부사 '를/도/들/좁...'으로 분석한다. [예 : '(...에) 해당을 한다'는 '해당한다'와 '을'로 분석한다.]

ㄴ. 'X'외에 다른 목적어가 될 만한 성분이 없는 그 외의 경우는 목적어 'X{를/도/들/좁...}'과 타동사 '하다'로 분석한다. [예 : '(종일) 공부를 했어'는 목적어 '공부를'과 타동사 '했어'로 분석한다.]

(8) 'X' 앞에 목적어가 있는 '(...을) X{를/도/들/좁...} 하다'는 타동사 'X하다'와 조사 혹은 부사 '를/도/들/좁...'으로 분석한다. (예 : '(수학을) 공부를 했어'는 타동사 '공부했어'와 조사 '를'로 분석한다.)

이것은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휘자료 처리를 위한 형태·통사론적 연구의 일부일 뿐이다. 앞으로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와 같이 거대한 항목수를 가진 어휘 부류의 처리 방안, 한자어 어휘들의 처리 방안, 관용어와 연어의 처리 방안, 그리고 조사, 어미 등 문법요소들의 처리 방안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말뭉치 기반 국어연구 총서 2, 한국문화사.
-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김광해(1982), “복합명사의 신생과 어휘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 김광해·김동식(1993), 국어 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 김창섭(1995), “국어 파생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 김창섭(1996=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탑출판사.
- 김창섭(1998),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문과.
- 남기심(1970), “이음씨끝 “-아”를 매개로 한 겹씨의 움직임씨 형성에 대하여”, 한글 146.
- 박양규(1987), “‘보내오다’류의 유표적 복합동사들”, 국어학 16. [이병근·채완·김창섭 공편(1993)에 재수록].
-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서정수(1990), “합성어에 관한 문제”, 국어문법의 연구 II, 한국문화사. [이병근·채완·김창섭 공편(1993)에 재수록]
- 서정곤(1994), “‘X를 하다’와 ‘X하다’의 상관성”, 국어학 24.
- 심재기(1980=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이병근(1986), “국어 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서울대 어학연구소) 22.3.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단국대) 5.
- 이현우(1990), “국어 어휘 사용의 몇 모습”, 국어생활 22, 국어연구소.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 이희승 편(1982), 국어 대사전(수정 증보판), 민중서림.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임홍빈(1998)에 재수록]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2, 태학사.
- 채완(1984), “화제와 총칭성, 특정성, 한정성”, 목천 유창균 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 채희락(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 3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현배(1975/1937), 우리말본(다섯번째 고침), 정음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철구(1998), 국어의 합성동사 형성과 어기분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후지사와 후미또(藤澤文人)(1996), 현대 한국어 형태론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부록 1]

## ‘V1-어+V2’형 합성동사 목록1)

### (V1 기준 배열)

가	당	“무엇이 독자들의 마음에 가닿았나?”
가	# 버리	
가까와	# 지	
가꾸어	# 가	(참고)成長해 가다. [계속]
가라	앉	
가라	앉히	
가려	내	
가려	잡	
가져	# 가	(참고)運搬해 가다. [대상의 이동]
가져	# 오	(참고)輸送해 오다. [대상의 이동]

- 1) (1) ‘#’는 두 동사가 내포 구성(보조동사 구성 포함)을 이룸을 나타낸다. 따라서 ‘V1-어 #V2’는 합성동사가 아니다.
- (2) ‘데려#가다, 데려#오다’ 등을 합성동사가 아니라 내포구성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데려#놓다’, ‘데려#주다’가 없는 것으로 보아, ‘데려#X’는 연어로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 ‘데려다#놓다’도 내포구성인 연어로 등재되어야 한다. ‘들려#주다’(듣게 해 주다) 등도 마찬가지로 내포구성인 연어로 등재 대상이다.
- (3) ‘나+X’, ‘내+X’는 ‘-어’형 합성동사인지, ‘어간+어간’형 합성동사인지, 접두사를 가진 파생동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에 포함하였다.
- (4) 참고한 사전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S : 신기철·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사전》(1975)

L :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1982)

G : 김민수 외 편 《금성관 국어대사전》(1991)

U : 한글학회 지은 《우리말 큰사전》(1991-2)

Y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1998)

사전의 기술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간략하게 다듬은 경우에도 인용사전을 표시하였다.

가해 # 지  
 간추려 # 지  
 갈겨 쓰  
 갈라 내  
 갈라 서  
 갈라 # 놓  
 갈라 # 지  
 갈려 들  
 갈려 가  
 갈려 오  
 갈마 들  
 갈아 내  
 갈아 대  
 갈아 들  
 갈아 들어  
 갈아 붙어  
 갈아 서  
 갈아 세우  
 갈아 옆  
 갈아 입  
 갈아 치우  
 갈아 타  
 갈아 # 주  
 감아 내  
 감아 당기  
 감아 먹  
 감돌아 들  
 감싸 쥐  
 감싸 # 주  
 감아 들  
 갠아 # 가  
 거두어 들이  
 거뒀 들이

<합하였던 것을 각각 따로 떼어내다.>

“두부 모를 갈라 놓은 듯”

<전근되어 다른 곳으로 가다.>L.

<(큰말)꺾어당기다.>L.

(참고)償還해 가다. [계속]

거들떠 보  
 거머 들이  
 거머 삼키  
 거머 안  
 거머 잠  
 거머 쥐  
 거슬러 올라가  
 거슬러 올라오  
 거쳐 가  
 거쳐 오  
 건너 가  
 건너 곳  
 건너 다니  
 건너 뛰  
 건너 보  
 건너 서  
 건너 오  
 건너 지르  
 건너 질리  
 건너 짚  
 건네 # 주  
 건져 내  
 건져 올리  
 걷어 들  
 걷어 들이  
 걷어 붙이  
 걷어 잡  
 걷어 지르  
 걷어 질리  
 걷어 차  
 걷어 채

“웃자락을 \_\_\_”S.

<웃자락이나 휘장 같이 길게 드리워진 것을 걷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꽂아 놓다.>S.

<피로하거나 기운이 없어 눈까풀이 맥없이 열려져 있고 눈알이 우묵해지다.>S.

걷어 치 <‘걸어치우다’의 준말.>Y.  
 걷어 치우  
 걸러 내  
 걸러 들  
 걸어 가  
 걸어 다니  
 걸어 붙이  
 걸어 앉  
 걸어 오  
 걸어 # 오 “전화를 걸어 왔다.” [행위의 방향]  
 걸쳐 # 놓  
 걸쳐 # 두  
 걸쳐 # 지  
 걸터 들이  
 걸터 먹  
 걸터 앉  
 걸터 타  
 게워 내  
 게올러 # 터지  
 겨눠 보  
 견더 # 나가 “고통을 견더 나간다.” [계속]  
 겹쳐 # 지  
 고쳐 쓰  
 고쳐 짓  
 고쳐 쥐  
 골라 내  
 골라 잡  
 굶아 터지  
 굶아 떨어뜨리  
 굶아 떨어지  
 굶아 # 빠지  
 괴어 오르  
 구슬려 삶



구슬려 세우 <그럴듯한 말로 남을 자꾸 추켜세우다.>S.  
 구슬려 # 내 [해냄]  
 구슬려 # 대 <자꾸 구슬리다.>L. [반복]  
 구워 내  
 구워 삶  
 구해 내 “위험에서 \_\_\_”  
 굴러 가  
 굴러 다니  
 굴러 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었다.”  
 굴러 들어오  
 굴러 떨어지  
 굴러 오  
 굴러 # 덕 [행위자의 이익]  
 굶어 # 지  
 굶어 보  
 굶어 살피  
 굶혀 # 지  
 귀넘어 들  
 귀담아 들  
 귀여겨 들  
 그러 내  
 그러 넣  
 그러 담  
 그러 당기  
 그러 들이  
 그러 모으  
 그러 묻  
 그러 안  
 그러 잡  
 그러 쥐  
 그어 대  
 그어 # 주 <어떤 돈이나 곡식 가운데에서 일정한 양을 뚫으로 떼어 주  
 다.>S.

끊어	내	
끊어	내리	
끊어	당기	<(작은말)잡아당기다.>L.
끊어	먹	
끊어	모으	
끊어	취	
기대	서	
기대	앉	
기어	가	
기어	나가	
기어	나오	
기어	내려오	
기어	다니	
기어	들	
기어	들어가	“목소리가 ____.”
기어	오	
기어	오르	
기어	올라가	
기울어	지	
길들여	# 지	
길어	# 오	[대상의 이동]
깊어	# 가	[계속]
까	내리	“양말을 흘렁 까내렸다.” “산비탈 흙을 까내려서 옥수수를 심었다.” “무조건 작품을 까내리고 싶었다.”Y.
까	뒤집	“눈을 하얗게 까뒤집었다.”
까	뒤집히	“눈이 하얗게 까뒤집혔다.”
까	먹	“밤을/사탕을/돈을/숙제를/약속을 까먹었다”
까	무느	<높은 데를 파서 깎아내리다.> “언덕을 ____”L.
까	발기	<‘까발리다’의 비표준어>L.
까	발리	
까	부수	“...적을 까부수는 게임...”Y.
까	세우	<‘뒹아세우다’의 비표준어.>L.
까	올리	<돈이나 재산 따위를 모조리 쓰거나 없애 버리다.>U.



끓어	얹히
췘	들
췘	췘
췘	뜨리
췘	매
췘	차
췘뚫어	보
췘어	들
췘어	차
끄어	내
끄어	내리
끄어	당기
끄어	들이
끄어	올리
끄집어	내
끄집어	내리
끄집어	당기
끄집어	들이
끄집어	올리
끓어	뜨리
끓어	말
끓어	지
끓어	치
끓어	# 주
끌러	내
끌러	가
끌러	다니
끌러	들
끌러	오
끌어	내
끌어	내리
끌어	녕
끌어	당기

끌어	대	
끌어	들이	
끌어	매	
끌어	모으	
끌어	안	
끌어	올리	
끌어	잡	
끌어	# 가	(참고)招聘해 가다 [대상의 이동]
끌어	# 오	(참고)招請해 오다. [대상의 이동]
끓어	오르	
끼어	넣	
끼어	들	
나	가	
나	다니	
나	대	
나	돌	
나	동그라지	
나	동그러지	
나	뒤쳐지	
나	뒹굴	
나	블	
나	서	
나	앉	
나	엮어지	
나	오	(참고)들어오다.
나	오르	<소문 같은 것이 퍼져 자꾸 오르내리다.>L.
나	자빠지	
나가	넘어지	
나가	동그라지	
나가	동그러지	
나가	떨어지	
나가	빠드러지	
나가	쓰러지	

나가 자빠지

나가 # 버리

나꿔 채

나누어 # 주

나돌아 다니

나라 지 <‘늘어지다’의 작은말.>S.

나아 가

나아 오

나타 나

나타 내

나타내 # 주

냥아 채

날라 # 가 [대상의 이동]

날라 # 오 [대상의 이동]

날려 가

날려 보내

날려 쓰

날려 오

날려 # 버리

날아 가

날아 다니

날아 들

날아 오르

날아 오

날아 # 보

냥아 # 빠지 (참고)순진해 빠지다

남겨 # 놓

남겨 # 두

남겨 # 주

남겨 # 지

남아 나

남아 넘치

남아 돌

남아 돌아가

낮추어 보

낮춰 # 주

내 갈기

내 건 <앞을 향해 건다.>S.

내 걸

내 굴리

내 굽

내 깔기

내 깔리

내 단

내 대 <①[요구·조건 따위를] 대상자 앞에 강력히 제시하다. \* 근로 조건을 내대다. ②함부로 말해 대거나 소홀하게 마구 대하다. \* 마구 말을 내대다. ③앞으로 내밀어서 어떤 것에 가까이 하거나 닿게 하다. \* 그는 날이 시퍼런 장도를 목에 내댔다.>S.

내 던지

내 돌 “여드름이 \_\_\_”S.

내 돌리

내 동댕이치

내 두르

내 돌리

내 들

내 디디

내 딪

내 떨

내 뚫

내 뚫리

내 뒹

내 말기

내 매

내 먹

내 몰

내 몰리

내	밀
내	밀리
내	밀치
내	박차
내	박차
내	받
내	밧
내	배
내	벨
내	보내
내	보이
내	부딕
내	부딕뜨리
내	불이
내	비치
내	뻘
내	뻘치
내	뻘
내	뿌리
내	뻘
내	세우
내	숫
내	쉬
내	쏘
내	씹
내	얏
내	젓
내	지르
내	쫓
내	쫓기
내	차
내	치



내 팽개치  
 내 휘두르  
 내 흔들  
 내 달리  
 내 # 가 [대상의 이동]  
 내 # 놓  
 내 # 버리  
 내 # 오 [대상의 이동]  
 내 # 주  
 내돌려 # 대 [반복]  
 내려 가  
 내려 깔기  
 내려 굶  
 내려 깔기  
 내려 꽃  
 내려 누르  
 내려 디디  
 내려 뜨  
 내려 뜨리  
 내려 먹  
 내려 보  
 내려 보내  
 내려 비치  
 내려 서  
 내려 쏘  
 내려 쏘  
 내려 쏟아지  
 내려 쓰 "모자 챙을 \_\_\_\_"  
 내려 앉  
 내려 오  
 내려 쫓  
 내려 짝  
 내려 치

내려 # 놓  
 내려 # 두  
 내려 # 주  
 내려 # 지  
 내맡겨 # 지  
 내버려 # 두  
 내뺀 오  
 내어 던지  
 내어 # 가 [대상의 이동]  
 내어 # 놓  
 내어 # 버리  
 내어 # 오 [대상의 이동]  
 넘어 # 놓  
 넓혀 # 가 [계속]  
 넓혀 # 나가 [계속]  
 넘겨 쓰  
 넘겨 씌우  
 넘겨 잡  
 넘겨 짚  
 넘겨 # 받 “권리를 \_\_\_\_”  
 넘겨 # 버리  
 넘겨 # 주  
 넘어 가  
 넘어 뛰  
 넘어 뜨리  
 넘어 박히  
 넘어 서  
 넘어 오  
 넘어 지  
 넘쳐 나  
 넘쳐 나오  
 넘쳐 흐르  
 넘쳐 # 버리

넣어 # 두  
 넣어 # 보  
 넣어 # 주  
 노려 보  
 녹슬어 # 들어가 [진행]  
 녹아 나  
 녹아 들 “핏속에 산소가 \_\_\_”  
 녹아 떨어지  
 녹아 # 버리  
 놀라 자빠지  
 놀려 # 대 [반복]  
 놀려 # 먹 [행위자의 이익]  
 놀아 나  
 놀아 # 먹 [행위자의 이익]  
 놀아 # 보  
 높아 # 가 [계속]  
 높아 # 지  
 높여 # 가 [계속]  
 높여 # 주  
 놓아 기르  
 놓아 먹 <구속이나 통제를 받거나 보살피는 사람 없이 제 멋대로 자라  
 다.>S.  
 놓아 먹이 <‘놓아먹다’의 사역형.>S.  
 놓아 보내  
 놓아 # 가 [계속]  
 놓아 # 두  
 놓아 # 버리  
 놓아 # 주  
 놓쳐 # 버리  
 누그러 뜨리  
 누그러 지  
 누려 # 오 [계속]  
 누워 먹

누워	지내	
눈감아	# 주 <sup>2)</sup>	
눈여겨	보	
눌러	내리	
눌러	듣	
눌러	보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 주다.>
눌러	쓰	
눌러	앉	
눌러	# 대	[반복]
눌러	# 주	
늘어	붙	
늡혀	# 놓	
느껴	울	
느껴	# 보	
늘려	# 가	[계속]
늘려	# 놓	
늘려	# 주	
늘어	나	
늘어	뜨리	
늘어	붙	
늘어	서	
늘어	앉	<길게 줄을 지어 앉다.>
늘어	자	
늘어	# 가	[계속]
늘어	# 놓	(참고)展示해 놓고.
늡어	# 가	(참고)成長해 가다. [계속]
늡어	# 빠지	
다가	가	
다가	붙	
다가	서	
다가	앉	

---

2) 보조용언 구성이 관용구가 된 예이다.

다가	오	
다녀	가	
다녀	오	
다려	# 가	(참고)다리미질해 가다. [대상의 이동]
다려	# 오	(참고)다리미질해 오다. [대상의 이동]
닥쳐	오	
뒹아	내	
뒹아	세우	
뒹아	# 나오	“타일을 한 장 한 장 뒹아 나와라.” [계속]
뒹아	# 대	[반복]
뒹아	# 주	
달아	걸	
달겨	들	
달라	들	
달라	붙	
달라	# 지	
달려	가	
달려	나가	
달려	들	
달려	오	
달아	나	
달아	매	
달아	오르	
달아	# 보	
대	가	“시간에 ____”
대	오	“시간에 ____”
대	# 보	
대	# 주	
던져	# 두	
덜어	내	
덜어	# 주	
덤벼	들	
덮어	쓰	

덮어	씩우	
덮어	# 놓	(참고)덮어놓고
데려	# 가	(비교)隨行해 가다. “제 형을 보내서 데려 갔다.” [대상의 이동]
데려	# 오	(비교)隨行해 오다. [대상의 이동]
도다녀	가	<왔다가 지체없이 돌아가다. (반)도다녀오다.>L.
도다녀	오	<갔다가 지체없이 돌아오다.>
도려	내	
돌아	나	
돌라	내	
돌라	대	<①돈이나 물건 따위를 형편에 맞게 변동하여 대다. ②그럴싸한 말로 꾸며대다. ③돌레를 빙 돌려 갖다 대다. x돌려대다. <돌려대다.>S.
돌라	막	
돌라	맞추	
돌라	매	
돌라	보	<①‘돌러보다’의 작은말. ②돌려보다.>S.
돌라	붙	<형편이나 기회를 보아서 이로운 쪽으로 붙쫓다. <돌러붙다.>S.
돌라	서	
돌라	싸	
돌라	쌍	
돌라	얏	
돌라	치	
돌라	# 가	<남의 물건을 뒤로 슬쩍 빼돌리어 가져가다.>L. [대상의 이동]
돌라	# 놓	
돌라	# 버리	
돌라	# 오	<남의 물건을 뒤로 슬쩍 빼돌리어 가져오다.> [대상의 이동]
돌라	# 주	
돌려	내	
돌려	대	
돌려	보	
돌려	보내	
돌려	새우	

돌려 쓰  
 돌려 # 놓  
 돌려 # 버리  
 돌려 # 주  
 돌려 # 지  
 돌아 가  
 돌아 내리  
 돌아 눕  
 돌아 다니  
 돌아 들  
 돌아 보  
 돌아 서  
 돌아 앉  
 돌아 오  
 돌아 치  
 돌이켜 보  
 동여 매  
 돼 # 먹  
 되돌아 가  
 되돌아 보  
 되돌아 오  
 되살아 나  
 되살펴 보  
 되어 # 가  
 되어 # 주  
 되짚어 가  
 되짚어 오  
 되찾아 # 지  
 두들겨 맞  
 두들겨 패  
 무거워 # 하  
 두어 # 두  
 둘러 대

[행위자의 이익]

(참고)成長해 가다. [계속]

둘러 막  
 둘러 맞추  
 둘러 메  
 둘러 붙  
 둘러 빠지  
 둘러 서  
 둘러 싸  
 둘러 싸이  
 둘러 쓰  
 둘러 앉  
 둘러 옆  
 둘러 치  
 둘러 보  
 둘러 # 놓  
 뒤 # 두  
 뒤돌아 보  
 뒤따라 가  
 뒤따라 오  
 뒤어 내  
 뒤져 내  
 뒤져 # 보  
 뒤집어 쓰  
 뒤집어 씌우  
 뒤집어 엮  
 뒤집어 # 지  
 뒤집혀 # 지  
 뒤쫓아 가  
 뒤쫓아 다니  
 뒤쫓아 오  
 드러 나  
 드러 내  
 드러 눕  
 드러 쌓아

<‘뒤져내다’의 준말.>



드러	장이	
드리워	# 지	
들러	가	
들러	붙	
들러	오	
들러	# 주	“음악을 들려 준다.”
들어	가	
들어	내	
들어	맞	
들어	맞추	<틀림이 없이 올바르게 맞추다.>S.
들어	먹	
들어	박히	
들어	붓	
들어	서	
들어	앉	
들어	오	
들어	올리	
들어	차	
들어	# 주	
들여	대	<아주 가깝게 바짝 접근하여 놓다.>S.
들여	디디	
들여	보내	
들여	세우	
들여	쌓	
들여	앉히	
들여	# 가	(참고)輸入해 가다. [대상의 이동]
들여	# 놓	
들여	# 오	(참고)輸入해 오다. [대상의 이동]
들추어	내	
들추어	보	
들취	내	
따	들리	
따	먹	

따라	가	
따라	나서	
따라	다니	
따라	붙	
따라	오	
따라	잡	
때려	눅히	
때려	부수	
때려	죽이	
때려	치우	
떠	가	
떠	내	
떠	내려가	
떠	내려보내	
떠	내려오	
떠	넘기	
떠	다니	
떠	대	<거짓으로 꾸미어 대답하다.> “그 놈이 함부로 거짓을 떠낸다.”S.
떠	들	
떠	들치	<①조금 힘있게 들추어 올리다. ②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다.>S.
떠	말	
떠	말기	
떠	먹	
떠	메	
떠	밀	
떠	받	“빨로 나무를 떠받았다.”
떠	받들리	<‘떠받들다’의 피동형.> “아이들에게 떠받들리어 가다.”S.
떠	받치	
떠	오	
떠	오르	
떠	올리	
떠	받들	

떠 # 놓  
떠 # 보  
떠나 가  
떠나 오  
떠돌아 다니

떠들여 # 대 [반복]

떨어 내  
떨어 뜨리  
떨어 먹  
떨어 지

떨어 # 버리 “가슴에 얽히고 설킨 시름을 떨어 버렸소.”S.

떨어져 나가  
떨쳐 나서

떼 내  
떼 먹

떼 # 놓  
떼 # 버리

떼어 먹  
떼어 # 놓  
떼어 # 버리

툭어 새기  
툭어 내

툭어 # 지  
뛰어 가

뛰어 나가  
뛰어 나오

뛰어 내리  
뛰어 넘

뛰어 다니  
뛰어 들

뛰어 들어오  
뛰어 오

뛰어 오르

뛰쳐 나가  
 뛰쳐 나오  
 뜯어 고치  
 뜯어 내  
 뜯어 말리  
 뜯어 먹  
 뜯어 보  
 뜯어 읽  
 뜯어 # 버리  
 띄어 쓰  
 마셔 # 대 [반복]  
 마셔 # 버리  
 막아 # 내 [해냄]  
 말라 불  
 말라 비틀어지  
 말라 # 들어가 “저수지 물이 \_\_\_\_”. [진행]  
 말라 # 빠지  
 말려 들  
 말아 먹  
 망가 지  
 망가 뜨리  
 맞아 들이  
 맞아 떨어지  
 매 달  
 매 달리  
 매어 달  
 먹어 치우  
 먹어 # 대 [반복]  
 먹여 살리  
 먹혀 들  
 먹혀 # 들어가 [진행]  
 멈춰 서  
 메 꽃

메	붙이	<‘메어붙이다’의 준말.>S.
메	치	<‘메어치다’의 준말.>S.
메어	꽃	
메어	치	
모아	들	<여럿이 어떤 범위 안으로 향하여 오다. 모여들다.>L.
모아	짜	<여럿을 모아서 한 덩이가 되게 하다.>L.
모여	들	
모여	오	<<궁중>가져오다.>L.
몰라	보	
몰라	# 주	
몰려	가	
몰려	나	<①쫓기어나다. ②여럿이 떼를 지어 나가다.>L.
몰려	나가	
몰려	나오	
몰려	다니	
몰려	들	
몰려	오	
몰아	내	
몰아	넣	
몰아	닥치	“(폭풍우가/일이/사람들이)한꺼번에 ___”Y.
몰아	들이	
몰아	받	<한꺼번에 받다.>
몰아	붙이	
몰아	사다	<한꺼번에 사다.>L.
몰아	세우	
몰아	쉬	
몰아	치	
몰아	# 가	[대상의 이동]
몰아	# 대	[반복]
몰아	# 오	[대상의 이동]
몰아	# 주	
몸져	눅	
묶어	세우	

묶여 # 지

묻어 나

“이마를 쓸어 보니 땀이 묻어났다.”

묻어 # 두

묻어 # 버리

물러 가

물러 나

물러 서

물러 앉

물러 오

<가다가 피하여 도로 오다.>L.

물러 # 터지

물려 지내

<귀찮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저냥 지내다.>L.

물려 가

물려 오

물려 # 받

“언니의 책을 \_\_\_”

물려 # 주

묻어 내

묻어 넣

묻어 떼

묻어 뜯

묻어 # 보

묻어 # 주

뭉쳐 다니

미끄러 뜨리

미끄러 지

미루어 보

미뤄 # 두

미쳐 날뛰

미쳐 # 버리

믿어 # 주

믿어 # 지

밀려 가

밀려 나

밀려 나오

밀려 다니  
 밀려 들  
 밀려 오  
 밀어 내  
 밀어 닥치  
 밀어 뜨리  
 밀어 붙이  
 밀어 져히  
 밀쳐 # 놓  
 바뀐 치  
 바뀐 # 버리  
 바뀐 # 보  
 바뀐 # 지  
 바라 보  
 바라 보아  
 바라 지  
 바래 # 주  
 바스러 뜨리  
 바스러 지  
 박아 내  
 박아 # 대  
 반겨 # 주  
 받아 내  
 받아 넘기  
 받아 들이  
 받아 보  
 받아 쓰  
 받아 치  
 받아 # 가  
 받아 # 놓  
 받아 # 버리  
 받아 # 오  
 받아 # 주

<사진이나 글자 등을 찍어내다.>

[반복]

(참고)受領해 가다. [대상의 이동]

[대상의 이동]

받쳐	들	
받쳐	입	
받쳐	# 주	
발견해	# 내	[해냄]
발굴해	# 내	[해냄]
발라	내	
발라	맞추	
발라	먹	
맡혀	# 지	
배겨	나	
배겨	# 내	[해냄]
배라	먹	<<빌어먹다.>
배어	나	
배어	나오	
배어	들	
배워	# 먹	[행위자의 이익]
밭뛰어	가	<깡총깡총 뛰어가다.>L.
버려	# 두	
버려	# 지	
번져	# 나가	(참고)擴散되어 나가다. [진행]
벌쳐	오르	
벌거	벗	
벌거	벗기	
벌어	들이	
벌어	먹	
벌어	# 지	
벗겨	# 지	
벗어	나	
벗어	던지	
벗어	부치	
벗어	젓혀	
벗어	제치	
벗어	# 지	



베껴      쓰  
 베어      내  
 베어      먹      “그는 낮에도 더러 찾아오곤 해서 그의 일하는 시간을 베어먹곤 했다.”Y.

베어      # 버리  
 보내      # 오      [화자를 향한 행위]  
 보아      # 두  
 보아      # 주  
 볶아      치      <몹시 급하게 몰아치다.> “공부하라고 볶아쳤다.”  
 볶아      # 대      [반복]  
 봐        # 두  
 부등켜    안  
 부러      뜨리  
 부러      지  
 부러      # 먹      [행위자의 이익]  
 부서      뜨리  
 부서      지  
 부스러    뜨리  
 부스러    지  
 부식해    # 들어가    [진행]  
 부여      오르  
 부여      안  
 부여      잡  
 부풀어    오르  
 불러      내  
 불러      들이  
 불러      먹다      (제출후 추가) “자장면을 불러먹는다”, “자장면을 시켜 먹는다”  
 불러      모으  
 불러      세우  
 불러      일으키  
 불러      제치  
 불러      # 가      (참고)招請해 가다. “전화로 의사를 불러 갔다.” [대상의 이동]  
 불러      # 대      [반복]

불려 # 오 (참고)招請해 오다. [대상의 이동]  
 불려 다니  
 불려 가  
 불려 오  
 불어 가  
 불어 나  
 불어 넣  
 불어 닥치  
 불어 먹 <[재물이나 돈을] 헛되이 다 써서 없애다.>  
 불어 세우 <남을 따돌리다.>S.  
 불어 오  
 불어 터지  
 불어 # 대 [반복]  
 불들어 매  
 불박아 # 놓  
 불어 다니  
 불어 살 <남에게 의지하여 살다. 얹혀 살다.>L.  
 불어 서  
 불어 # 먹 [행위자의 이익]  
 불어 # 있  
 불여 지내 <남의 집에 밥이나 살림을 의탁하여 살아가다.>  
 불잡아 매  
 비끄러 매  
 비뜯어 # 지  
 비어 지 <①가려지거나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내밀다. ②숨었던 일이  
 터져서 드러나다.>L.  
 비집어 열  
 비추어 보  
 비켜 나  
 비켜 서  
 비켜 앉  
 빌려 # 주  
 빌어 먹

빗어    내  
 빗어    # 지  
 빠개    # 지  
 빠져    나가  
 빠져    나오  
 빠져    들  
 빠져    # 들어가 [진행]  
 빨아    내  
 빨아    들어  
 빨아    떡  
 빨아    올리  
 빼        내  
 빼        담  
 빼        돌리  
 빼        떡  
 빼        물  
 빼        # 놓  
 빼        # 버리  
 빼어    나  
 빨쳐    오르  
 뽑아    내  
 뽑어    내  
 빼져    나오  
 사        들이  
 사그라    들  
 살려    # 내        [해냄]  
 살려    # 주  
 살아    나  
 살아    가        <살아서 가다>  
 살아    오        <살아서 오다>  
 살아    # 가        [계속]  
 살아    # 오        “지금까지 살아 온 이야기.” [계속]  
 살피    보

새겨 듣  
 새어 들어오  
 생겨 나  
 섞여 들어가  
 세워 # 지  
 속아 넘어가  
 속여 넘기  
 속여 # 먹 [행위자의 이익]  
 속아 내  
 솟아 나  
 솟아 오르  
 수그러 들  
 숙어 # 지 “①앞으로 기울어지다. ②기운이 줄어들다.”L.  
 숨어 들  
 숨어 살  
 스며 나오  
 스며 들  
 스쳐 보  
 싸 매  
 싸 잡  
 써 내  
 써 넣  
 써 # 먹 [행위자의 이익]  
 썩어 # 들어가 [진행]  
 썩어 # 빠지  
 쏘아 보  
 쏘아 붙이  
 쏟아 붓  
 쏟아 지  
 쏟아져 나오  
 쭈셔 박  
 쭈셔 # 대 [반복]  
 쓸어 들이 <쓸어서 모아들이다.>L.

쓸어 # 버리  
 씻어 내  
 아껴 쓰  
 안아 말 <남의 일을 책임지고 맡다. (H)친구의 일까지 안아맡아서 해내다.>U.

알겨 내  
 알겨 먹  
 알려 # 지  
 알아 듣  
 알아 맞히  
 알아 방이 <무슨 일의 낱새를 알고 미리 방비하다. (H)화재가 날 것을 알아방이었다면 것처럼 큰 손해를 입지 않았을 터인데.>U.

알아 보  
 알아 차리  
 알아 채  
 알아 # 내 [해냄]  
 알아 # 먹 [행위자의 이익]  
 알아 # 주  
 앓아 늡  
 앓아 넣 <한 쪽으로 쓸리지. 앓도록 끝을 깎아서 여긔매껴 넣다. 어긔나게 박다.>L.

앓아 # 가 (참고)掠奪해 가다. [대상의 이동]  
 앓아 # 오 (참고)掠奪해 오다. [대상의 이동]  
 앞서 가  
 앞서 오  
 알잡아 보  
 어물어 # 빠지 <몹시 어물다.>L.

엮어 # 주  
 엮혀 살  
 얻어 걸리  
 얻어 내  
 얻어 듣  
 얻어 맞

얼어	떡	
얼어	터지	
얼어	# 지	
얼러	넘기	
얼러	맞추	<교묘한 말로 남의 비위를 얼러서 맞추다.>L.
얼러	떡	<서로 어울러서 함께 먹다.>L.
얼러	붙	<둘이 어우러져 서로 붙다. / 얼러붙어 싸우다.>L.
얼러	치	<①들 이상의 것을 한꺼번에 때리다. ②들 이상의 물건 값을 한꺼번에 계산하다.>L.
얼러	# 대	[반복]
얼싸	안	
얼어	붙	
엷어	내	<①물건을 엷어서 끌어내다. ②남의 물건을 꺾 부러 약빠르게 끌어내다.>L.
엷어	매	
엷어	차	
엷드러	뜨리	
엷드러	지	
엷어	누르	<위에서 내려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 (준)엷누르다.>L.
엷어	뜨리	
엷어	말	<①국수·떡국 같은 것의 두 그릇을 한데 말다. ②국수나 떡국 등에 고기가 보이지 않게 밑에 놓고 말다.>L.
엷어	삶	<①그럴싸한 말로 얼러넘기다. ②노름판에서 이기어 차지할 돈의 전부를 그대로 태어 놓고 다음 승부를 다투기로 하다.>
엷어	지	
엷어	# 놓	
예워	가	<한 점을 피하여 둘러 가다.>L.
예워	싸	
예워	싸이	
예워	싸이	
예워	오	
여겨	듣	
여겨	보	

여겨 # 지  
 엮어 내  
 엮어 # 가 “이야기를 엮어 갔다.” [계속]  
 엮어 # 나가 (참고)進行해 나가다. [계속]  
 엮어 # 놓  
 엮어 # 보

열어 젓뜨리  
 열어 젓히  
 열어 제치

오그라 들  
 오그라 뜨리  
 오그라 지  
 오려 내  
 오므라 들  
 오므라 뜨리  
 오므라 지

오비어 넣 <속을 헤치어 가면서 무엇을 옥이어 밀어 넣다. (거센말)호비어 넣다. (큰말)우비어넣다.>L.

올라 가  
 올라 다니 “서울에 \_\_\_”  
 올라 서  
 올라 앉  
 올라 오  
 올라 타

올려 보내  
 올려 # 놓  
 올려 # 주  
 올려 # 지

읊아 내 <①올가미 등을 썩워서 끌어 내다. ②수단을 부려서 남의 것을 약빠르게 끄집어 내다.>“남의 돈을 읊아내다.”L.

읊아 매  
 읊겨 다니  
 읊겨 붙

움겨	얏	
움겨	# 가	(참고)運搬해 가다. [대상의 이동]
움겨	# 놓	
움겨	# 보	
움겨	# 오	(참고)運搬해 오다. [대상의 이동]
움겨	# 지	
움아	가	
움아	오	
움츠러	들	
움츠러	뜨리	
움츠러	지	
움켜	쥐	
와	닿	“마음에 와닿는 것.”
외쳐	# 대	[반복]
우겨	# 대	[반복]
우그러	들	
우리	나	
우리	나오	
우리러	보	
우리	내	
우리	먹	
우므러	들	
우므러	뜨리	
우므러	지	
우버어	녕	
우버어	파	
욱여	들	<주위에서 중심 쪽으로 모여들다.>L.
욱여	싸	<①한가운데로 모아들여서 싸다. ②가엿것을 욱이어 속엿것을 싸다.>L.
올려	가	“중소리가 ___”
올려	오	“중소리가 ___”
올려	퍼지	“중소리가 ___”
올어	# 대	[반복]



움츠러 들  
 움츠러 뜨리  
 움츠러 지  
 움켜 잡  
 움켜 잡히 <움켜 잡음을 당하다.>L.  
 움켜 쥐  
 웃어 넘기  
 웃어 젓히  
 웃어 제치  
 올려 # 대 [반복]  
 이겨 # 나가 (참고)改善해 나가다. [계속]  
 이겨 # 내 [해냄]  
 이끌어 내  
 이루어 # 내 (참고)完成해 내다. [해냄]  
 이루어 # 지  
 이어 # 나가 (참고)維持해 나가다. [계속]  
 이어 # 받 “전통을 \_\_\_\_”  
 이어 # 지  
 이해해 # 주  
 익어 # 가 [계속]  
 일구어 # 내 [해냄]  
 일깨워 # 주  
 일러 # 두  
 일러 # 바치  
 일러 # 주  
 일어 나  
 일어 서  
 일어 앉  
 읽어 # 주  
 잃어 # 버리  
 잊어 # 먹 [행위자의 이익]  
 잊어 # 버리  
 잊혀 # 지

잊혀져 # 가 [계속]

자라 나

자리잡아#가 (참고)適應해 가다. [계속]

자아 내

자아 올리

잘라 내

잘라 매 <끈으로 졸라 단단히 동여매다. (참고)졸라매다.>L.

잘라 먹

잘라 # 가 (참고)切斷해 가다. [대상의 이동]

잘라 # 버리

잘라 # 주

잘려 나가

잡겨 들

잡들여 # 버리

잡아 내

잡아 넣

잡아 당기

잡아 들 <추수기에/산길로/방을 \_\_\_>L.

잡아 들이

잡아 때

잡아 매

잡아 먹

잡아 먹히

잡아 빼

잡아 죽이

잡아 채

잡아 타

잡아 # 가 (참고)逮捕해 가다. [대상의 이동]

잡아 # 나가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계속]

잡아 # 놓

잡아 # 두

잡혀 가

잡혀 오

찾아	들	<괴었던 물이 차차 말라들어간다.>L.
찾아	# 지	<점점 찾아들어 없어지게 되다.>L.
찾혀	# 지	
재어	# 보	
재어	# 지	
쟁여	# 두	
저러	# 오	[계속]
적서	# 가	[대상의 이동]
적서	# 오	(참고)消毒해 오다. [대상의 이동]
적어	내	
적어	넣	
전해	든	
전해	# 받	“명령을 ____”
전해	# 주	
접어	넣	
접어	들	
접어	# 놓	“요를/생각을 ____”Y.
접어	# 두	
접어	# 주	
접어	# 지	
접해	# 보	
젓어	들	
젓어	# 있	
제의해	# 오	[화자를 향한 행위]
제쳐	# 놓	
제쳐	# 두	
져	# 가	(참고)男負女戴해 가다. [대상의 이동]
져	# 오	(참고)男負女戴해 오다. [대상의 이동]
조여	들	
조여	잡	
줄라	매	
줄라	# 대	[반복]
줄아	들	

줄아	불	
좁혀	들	
좁혀	# 가	[계속]
좁혀	# 오	[계속]
좁혀	# 주	
좃아	가	
좃아	오	
좃아	# 지	
죄어	들	
죄어	치	
주어	# 지	
주워	담	
주워	들	
주워	먹	<흘려 있는 물건을 주워서 먹다.>L.
주워	섬기	
주워	# 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하다.>L. [반복]
주저	앉	
주저	앉히	
죽어	나	
죽어	지내	
죽여	# 주	
죽어	들	
쥐어	뜯	
쥐어	박	
쥐어	지르	<(준)궤지르다.>S.
쥐어	짜	
쥐어	치	<조리없는 말을 함부로 씨부렁거리다.>S.
쥐어	틀	<단단히 쥐고 틀다.>U.
쥐어	흔들	<손으로 휘어잡고 흔들다. (준)궤흔들다.>L.
쥐어	# 주	
쥐어	#지	"...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Y.
쥐여	살	
쥐여	지내	

지나 가  
 지나 다니  
 지나 오  
 지내 # 보  
 지어 내  
 지어 먹  
 지어 붓  
 지워 # 지  
 지켜 보  
 질러 가  
 질러 다니  
 질러 오  
 짚어 지  
 집어 내  
 집어 넣  
 집어 던지  
 집어 들  
 집어 뜯  
 집어 먹  
 집어 삼키  
 집어 세다  
 집어 치우  
 집어 # 주  
 짜 깎  
 짜부라 뜨리  
 짜부라 지  
 찌 내  
 쪼개 # 지  
 쪼그라 들  
 쪼그라 뜨리  
 쪼그라 지  
 쪼아 먹

<결심하다.>Y.

<쇠를 녹이어 붓다.>L.

<<방> 꼬집다.>L.

<①채면없이 마구 먹다. ②말과 행동으로 마구 뉘달하다. ③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다.>L.

쫓겨	가	
쫓겨	나	
쫓겨	다니	
쫓겨	오	
쫓아	가	
쫓아	내	
쫓아	다니	
쫓아	오	
쭈그러	들	
쭈그러	뜨리	
쭈그러	지	
찌그러	뜨리	
찌그러	지	
찍어	내	<①꼬챙이 같은 것으로 꿰어서 내다. ②인쇄하여서 내다.>L.
찍어	누르	<도장을 찍듯이 꼭 박아 누르다.>L.
찍어	당기	<①꼬챙이 같은 것으로 찍어서 앞으로 당기다. ②근육질의 부피가 죄어들어서 썩기는 힘이 생기다.>L.
찍어	매	<실이나 노끈 같은 것으로 대강 꿰매다. 살이 몹시 흠집이 저서 꿰맨 것 같다.>L.
찢어	발기	
차	오르	“물이/숨이 ___”
차	올리	“공을 ___”L.
차려	내	“생일상을 ___”
차려	입	
찾아	가	“아르헨티나로 엄마를 ___”
찾아	내	
찾아	다니	
찾아	들	
찾아	오	“아르헨티나로 엄마를 ___”
찾아	# 가	(참고)受領해 가다. [대상의 이동]
찾아	# 보	
찾아	# 오	(참고)受領해 오다. [대상의 이동]
채	뜨리	<①갑자기 앞으로 잡아당기다. ②재빠르게 채어 빼앗다.>

채 # 가 [대상의 이동]  
 쳐 내  
 쳐 들  
 쳐 들어가  
 쳐 들어오  
 쳐 부수  
 쳐 올리  
 쳐 죽이  
 쳐 # 가 (참고)收去해 가다. [대상의 이동]  
 쳐 # 버리  
 쳐 # 오 (참고)收去해 가다. [대상의 이동]  
 쳐 # 주 “이걸 얼마로 쳐 줄까?”  
 쳐 # 나가 “눈을 쳐나가는데 큰 돌이 걸렸다.” [진행]  
 추려 내  
 추려 # 놓  
 추어 내 <‘들추어내다’의 원말.>L.  
 추어 올리  
 추어 # 주  
 추켜 들  
 추켜 세우  
 추켜 올리  
 추켜 잡  
 치켜 들  
 치켜 세우  
 치켜 올라가 “눈꼬리가 \_\_\_”  
 치켜 올리  
 캐 내  
 캐 문  
 켜 내 <고치에서 실을 켜서 뽑아내다.>L.  
 켜 # 지  
 타 내  
 타 오르  
 타 # 들어가 [진행]

태어 나  
 터 뜨리  
 터 지  
 터 # 놓  
 터져 나오  
 털어 # 놓  
 토라 지  
 튀어 나가  
 튀어 나오  
 틀어 넣  
 틀어 막  
 틀어 박  
 틀어 박히  
 틀어 잡  
 틀어 쥐  
 틀어 지  
 파 내  
 파 먹  
 파 문  
 파 문히  
 파 헤치  
 파 먹히  
 파 # 놓  
 팔아 # 먹  
 퍼 내  
 퍼 먹  
 퍼 붓  
 퍼 내  
 퍼 # 놓  
 풀어 먹이  
 풀어 쓰  
 풀어 헤치  
 풀어 # 놓

“웃음이/실밥이 \_\_\_”

<‘(감정이)틀어지다’의 작은말로서 사람을 주어로 함.>

“옷장에 옷을 틀어박아 놓았다.”

[행위자의 이익]



풀어 # 주  
 풀어 # 지  
 피어 나  
 활아 떡  
 해 뜨리 <‘해어뜨리다’의 준말.>L.  
 해 지 <‘해어지다’의 준말.>L.  
 해 치우  
 해 # 내 “①상대방을 여지없이 이겨내다. ②말은 일 또는 당한 일을 능히 치러내다.”L. [해냄]  
 해 # 대 <화풀이로 마구 대들다.>L. [반복]  
 해 # 떡 [행위자의 이익]  
 해어 뜨리  
 해어 지  
 혀물어 뜨리  
 혀물어 지  
 헤어 나  
 헤어 지  
 헤쳐 나가  
 헤쳐 나오  
 호비어 넣  
 호비어 파  
 흙쳐 때리 <덤벼들어서 야무지게 때리다. (큰)흙쳐때리다.>L.  
 후려 갈기  
 후려 내 <매력으로써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피어 내다.> “벌췌한 유부녀를 후려내다.”L.  
 후려 치  
 후벼 파  
 훑어 내리  
 훑어 보  
 흙쳐 내  
 흙쳐 떡  
 흙쳐 보  
 휘어 가 <굽이쳐 흘러가다.>U.

휘어 넘어가 <①남의 께에 빠져 속아 넘어가다. ②힘이 모자라 남에게 굴복  
 하게 되다.>L.  
 휘어 대 <어떤 테두리 안으로 억지로 우겨 넣다.>U.  
 휘어 들 “허리가 휘어들게 일했다.” “어느 새 차는 영등포 쪽으로 휘어  
 들고 있었다.”  
 휘어 박 <①조금 높은 곳에서 함부로 넘어뜨리다. ②남을 함부로 다루어  
 굴복하게 하다.>L.  
 휘어 박히 <휘어박음을 당하다.>L.  
 휘어 잡  
 휘어 # 지  
 흐려 # 지  
 흐트러 뜨리  
 흐트러 지  
 흘겨 보  
 흘러 가  
 흘러 나오  
 흘러 내리  
 흘러 보 <남의 속을 슬그머니 떠보다.>U.  
 흘러 오  
 흘어 # 지

(V2 기준 배열)

가꾸어 #가  
 가져 #가  
 갈려 가  
 갇아 #가  
 거쳐 가  
 건너 가  
 걸어 가  
 굴러 가  
 기어 가  
 깊어 #가  
 끌려 가  
 끌어 #가  
 나 가  
 나아 가  
 날라 #가  
 날려 가  
 날아 가  
 내 #가  
 내려 가  
 내어 #가  
 넓혀 #가  
 넘어 가  
 높아 #가  
 높여 #가  
 놓아 #가  
 늘려 #가  
 늘어 #가  
 늙어 #가

다가 가  
 다녀 가  
 다려 #가  
 달려 가  
 대 가  
 데려 #가  
 도다녀 가  
 돌려 #가  
 돌아 가  
 되돌아 가  
 되어 #가  
 되짚어 가  
 뒤따라 가  
 뒤쫓아 가  
 들러 가  
 들어 가  
 들여 #가  
 따라 가  
 떠 가  
 떠나 가  
 뛰어 가  
 물려 가  
 몰아 #가  
 물러 가  
 물려 가  
 밀려 가  
 받아 #가  
 밟뛰어 가  
 불러 #가  
 불려 가

불어 가  
 살아 가  
 살아 #가  
 앓아 #가  
 앞서 가  
 에워 가  
 엮어 #가  
 올라 가  
 옮겨 #가  
 읊아 가  
 올려 가  
 익어 #가  
 잊혀져 #가  
 자리잡아#가  
 잘라 #가  
 잡아 #가  
 잡혀 가  
 적셔 #가  
 저 #가  
 좁혀 #가  
 좇아 가  
 지나 가  
 질러 가  
 쫓겨 가  
 쫓아 가  
 찾아 가  
 찾아 #가  
 채 #가  
 처 #가  
 휘어 가

흘러 가  
 내 갈기  
 내려 갈기  
 후려 갈기  
 내 건  
 내 걸  
 단아 걸  
 얻어 걸리  
 뜯어 고치  
 내 굴리  
 내 굽  
 건너 굶  
 내려 굶  
 놓아 기르  
 짜 집  
 내 깔기  
 내 깔리  
 내려 깔기  
 내려 꽃  
 메 꽃  
 메어 꽃  
 깨 나  
 깨어 나  
 나타 나  
 남아 나  
 넘쳐 나  
 녹아 나  
 놀아 나  
 늘어 나  
 달아 나

돌아 나  
 되살아 나  
 드리 나  
 몰려 나  
 물어 나  
 물러 나  
 밀려 나  
 배겨 나  
 배어 나  
 벗어 나  
 붙어 나  
 비켜 나  
 빼어 나  
 살아 나  
 생겨 나  
 솟아 나  
 우러 나  
 일어 나  
 자라 나  
 죽어 나  
 쫓겨 나  
 태어 나  
 피어 나  
 헤어 나  
 견뎌 #나가  
 기어 나가  
 넓혀 #나가  
 달려 나가  
 튀어 나가  
 따라 나서

떨어져 나가  
 뛰어 나가  
 뛰쳐 나가  
 몰려 나가  
 번져 #나가  
 빠져 나가  
 엮어 #나가  
 이겨 #나가  
 이어 #나가  
 잘려 나가  
 잡아 #나가  
 쳐 #나가  
 해쳐 나가  
 떨쳐 나서  
 기어 나오  
 넘쳐 나오  
 닦아 #나오  
 뛰어 나오  
 뛰쳐 나오  
 몰려 나오  
 밀려 나오  
 배어 나오  
 빠져 나오  
 빠져 나오  
 스며 나오  
 쏟아져 나오  
 우리 나오  
 터져 나오  
 튀어 나오  
 해쳐 나오

흘러 나오  
 미쳐 날뛰  
 가려 내  
 갈라 내  
 갈아 내  
 값아 내  
 건져 내  
 걸러 내  
 개워 내  
 골라 내  
 구슬려 #내  
 구워 내  
 구해 내  
 그러 내  
 굶어 내  
 깎아 내  
 끼 내  
 피어 내  
 꾸며 내  
 끄어 내  
 끄집어 내  
 끌러 내  
 끌어 내  
 나타 내  
 닦아 내  
 덜어 내  
 도려 내  
 둘러 내  
 돌려 내  
 뒤어 내

뒤져 내  
 드리 내  
 들어 내  
 들추어 내  
 들춰 내  
 떠 내  
 떨어 내  
 떼 내  
 뚫어 내  
 뜯어 내  
 막아 #내  
 몰아 내  
 물어 내  
 밀어 내  
 박아 내  
 받아 내  
 발견해 #내  
 발굴해 #내  
 발라 내  
 배겨 #내  
 베어 내  
 불러 내  
 빗어 내  
 빨아 내  
 빼 내  
 뽑아 내  
 뿜어 내  
 살려 #내  
 슈아 내  
 써 내

씻어 내  
 알겨 내  
 알아 #내  
 얻어 내  
 엮어 내  
 엮어 내  
 오려 내  
 읊아 내  
 우려 내  
 이겨 #내  
 이끌어 내  
 이루어 #내  
 일구어 #내  
 자아 내  
 잘라 내  
 잡아 내  
 적어 내  
 지어 내  
 집어 내  
 찌 내  
 좇아 내  
 짝어 내  
 차려 내  
 찾아 내  
 쳐 내  
 추려 내  
 추어 내  
 캐 내  
 켜 내  
 타 내

파 내  
 퍼 내  
 펴 내  
 해 #내  
 후려 내  
 훑쳐 내  
 떠 내려가  
 떠 내려보  
 기어 내려오  
 떠 내려오  
 굽어 내리  
 까 내리  
 깎아 내리  
 꺼 내리  
 꼬여 내리  
 꼬집어 내리  
 끌어 내리  
 눌러 내리  
 돌아 내리  
 뛰어 내리  
 뛰어 넘  
 훑어 내리  
 흘려 내리  
 떠 넘기  
 받아 넘기  
 속여 넘기  
 얼러 넘기  
 웃어 넘기  
 속아 넘어가  
 나가 넘어지

휘어	넘어가
남아	넘치
그러	녕
끌어	녕
끼어	녕
몰아	녕
몰어	녕
불어	녕
써	녕
앗아	녕
오비어	녕
우비어	녕
잡아	녕
적어	녕
접어	녕
집어	녕
틀어	녕
호비어	녕
갈라	#농
걸쳐	#농
까	#농
꽃아	#농
남겨	#농
내	#농
내려	#농
내어	#농
널어	#농
눅혀	#농
늘려	#농
늘어	#농

덮어	#농
돌라	#농
돌려	#농
둘러	#농
들여	#농
떠	#농
떼	#농
떼어	#농
밀쳐	#농
받아	#농
בל박아	#농
빼	#농
엮어	#농
엮어	#농
올려	#농
옮겨	#농
잡아	#농
집어	#농
제쳐	#농
추려	#농
터	#농
털어	#농
과	#농
퍼	#농
풀어	#농
내려	누르
엮어	누르
찍어	누르
돌아	눅
드러	눅



몸저      눅  
 앓아      눅  
 때려      눅히  
 건너      다니  
 걸어      다니  
 굴러      다니  
 기어      다니  
 끌려      다니  
 나        다니  
 나돌아   다니  
 날아      다니  
 돌아      다니  
 뒤쫓아    다니  
 따라      다니  
 떠        다니  
 떠돌아    다니  
 뛰어      다니  
 몰려      다니  
 뭉쳐      다니  
 밀려      다니  
 불려      다니  
 불어      다니  
 올라      다니  
 옮겨      다니  
 지나      다니  
 질러      다니  
 쫓겨      다니  
 쫓아      다니  
 찾아      다니  
 몰아      닥치

밀어      닥치  
 불어      닥치  
 내        단  
 매        달  
 매어      달  
 내        달리  
 매        달리  
 빼        닭  
 그리      닭  
 주워      닭  
 값아      당기  
 그러      당기  
 굶어      당기  
 꺼        당기  
 끄어      당기  
 끄집어    당기  
 끌어      당기  
 잡아      당기  
 찍어      당기  
 가        당  
 와        당  
 같아      대  
 구슬려 #대  
 그어      대  
 꾸며      대  
 끌어      대  
 나        대  
 내        대  
 내들러 #대  
 놀려      #대

놀러 #대  
 닦아 #대  
 돌려 대  
 돌려 대  
 돌려 대  
 들여 대  
 띠 대  
 띠들어 #대  
 마셔 #대  
 먹어 #대  
 몰아 #대  
 박아 #대  
 볶아 #대  
 불러 #대  
 불어 #대  
 쏘셔 #대  
 얼러 #대  
 외쳐 #대  
 우겨 #대  
 울어 #대  
 을러 #대  
 즐라 #대  
 주워 #대  
 해 #대  
 휘어 대  
 내 던지  
 내어 던지  
 벗어 던지  
 집어 던지  
 나 돌

남아 돌  
 내 돈  
 띠 돌  
 내 돌리  
 따 돌리  
 빼 돌리  
 남아 돌아가  
 나 동그라  
 나가 동그라  
 내 동맹이  
 걸쳐 #두  
 갈아 #두  
 남겨 #두  
 내려 #두  
 내버려 #두  
 넣어 #두  
 놓아 #두  
 던져 #두  
 두어 #두  
 뒤 #두  
 물어 #두  
 미뤄 #두  
 버려 #두  
 보아 #두  
 봐 #두  
 일러 #두  
 잡아 #두  
 쟁여 #두  
 접어 #두  
 제쳐 #두



우므러 들  
 옥여 들  
 움츠러 들  
 잠겨 들  
 잡아 들  
 잣아 들  
 접어 들  
 져어 들  
 조여 들  
 졸아 들  
 좁혀 들  
 죄어 들  
 줄어 들  
 집어 들  
 쪼그라 들  
 쭈그러 들  
 찾아 들  
 쳐 들  
 추켜 들  
 치켜 들  
 휘어 들  
 오그라 들  
 기어 들어가  
 녹슬어 #들어가  
 말라 #들어가  
 먹혀 #들어가  
 부식해 #들어가  
 빠져 #들어가  
 섞여 들어가  
 썩어 #들어가

쳐 들어가  
 타 #들어가  
 굴러 들어오  
 뛰어 들어오  
 새어 들어오  
 쳐 들어오  
 갈아 들이  
 거두어 들이  
 거뒀어 들이  
 거머 들이  
 걷어 들이  
 걸터 들이  
 그러 들이  
 꼬어 들이  
 꼬집어 들이  
 끌어 들이  
 맞아 들이  
 몰아 들이  
 받아 들이  
 벌어 들이  
 불러 들이  
 빨아 들이  
 사 들이  
 쓸어 들이  
 잡아 들이  
 떠 들치  
 내 디디  
 내려 디디  
 들여 디디  
 내 딪

흠쳐 때리  
 내 떨  
 꿩아 떨어뜨  
 꿩아 떨어지  
 굴러 떨어지  
 나가 떨어지  
 녹아 떨어지  
 맞아 떨어지  
 물어 때  
 잡아 때  
 꿰 뚫  
 내 뚫  
 내 뚫리  
 건너 뛰  
 내 뛰  
 넘어 뛰  
 내려 뜨  
 깨 뜨리  
 꿰 뜨리  
 끊어 뜨리  
 내려 뜨리  
 넘어 뜨리  
 누그러 뜨리  
 늘어 뜨리  
 떨어 뜨리  
 망가 뜨리  
 미끄러 뜨리  
 밀어 뜨리  
 바스러 뜨리  
 부러 뜨리

부서 뜨리  
 부스러 뜨리  
 엮드러 뜨리  
 엮어 뜨리  
 오그라 뜨리  
 오므라 뜨리  
 움츠러 뜨리  
 우므러 뜨리  
 움츠러 뜨리  
 짜부라 뜨리  
 쪼그라 뜨리  
 쭈그러 뜨리  
 쪼그러 뜨리  
 채 뜨리  
 터 뜨리  
 해 뜨리  
 헤어 뜨리  
 허물어 뜨리  
 흐트러 뜨리  
 물어 뜯  
 쥐어 뜯  
 집어 뜯  
 돌라 막  
 둘러 막  
 틀어 막  
 엮어 말  
 뜯어 말리  
 두들겨 맞  
 들어 맞  
 얻어 맞

돌라 맞추  
 둘러 맞추  
 발라 맞추  
 일러 맞추  
 들어 맞추  
 알아 맞히  
 끊어 말  
 떠 말  
 안아 말  
 내 말기  
 떠 말기  
 께 매  
 끌어 매  
 내 매  
 달아 매  
 둘러 매  
 동여 매  
 붙들어 매  
 붙잡아 매  
 비끄러 매  
 싸 매  
 엮어 매  
 묶어 매  
 잘라 매  
 잡아 매  
 줄라 매  
 짝어 매  
 값아 먹  
 걸터 먹  
 굴러 #먹

굵어 먹  
 까 먹  
 내 먹  
 내려 먹  
 놀려 #먹  
 놀아 #먹  
 놓아 먹  
 누워 먹  
 돼 #먹  
 들어 먹  
 따 먹  
 떠 먹  
 떨어 먹  
 떼 먹  
 떼어 먹  
 뜯어 먹  
 말아 먹  
 발라 먹  
 배라 먹  
 배워 #먹  
 벌어 먹  
 베어 먹  
 부러 #먹  
 불어 먹  
 불어 #먹  
 빌어 먹  
 빨아 먹  
 빼 먹  
 속여 #먹  
 써 #먹

알거 먹  
 알아 #먹  
 얻어 먹  
 얼러 먹  
 우려 먹  
 잇어 #먹  
 잘라 먹  
 잡아 먹  
 주워 먹  
 지어 먹  
 집어 먹  
 쪼아 먹  
 파 먹  
 팔아 #먹  
 퍼 먹  
 훑아 먹  
 해 #먹  
 훑쳐 먹  
 놓아 먹이  
 풀어 먹이  
 잡아 먹히  
 파 먹히  
 들러 메  
 떠 메  
 그리 모으  
 긁어 모으  
 끌어 모으  
 불러 모으  
 내 몰  
 내 몰리

까 무느  
 그러 문  
 겨 문  
 캐 문  
 과 문  
 파 문히  
 빼 물  
 깨 물리  
 깔아 몽개  
 내 밀  
 떠 밀  
 내 밀리  
 내 밀치  
 까 #바치  
 꼬아 #바치  
 일러 #바치  
 쑤서 박  
 쥐어 박  
 틀어 박  
 휘어 박  
 내 박차  
 내 박치  
 넘어 박히  
 들어 박히  
 틀어 박히  
 휘어 박히  
 내 받  
 넘겨 #받  
 떠 받  
 몰아 받

물려 #받  
 이어 #받  
 전해 #받  
 떠 받들  
 떠 받들리  
 떠 받치  
 까 받기  
 찢어 받기  
 까 발리  
 내 밟  
 알아 방이  
 내 배  
 내 벨  
 가 #머리  
 나가 #머리  
 날려 #머리  
 내 #머리  
 내어 #머리  
 넘겨 #머리  
 넘쳐 #머리  
 녹아 #머리  
 놓아 #머리  
 놓쳐 #머리  
 둘러 #머리  
 둘러 #머리  
 떨어 #머리  
 떼 #머리  
 떼어 #머리  
 뜯어 #머리  
 마셔 #머리

묻어 #머리  
 미쳐 #머리  
 바뀐 #머리  
 받아 #머리  
 배어 #머리  
 빼 #머리  
 쓸어 #머리  
 잃어 #머리  
 잇어 #머리  
 잘라 #머리  
 잠들어 #머리  
 처 #머리  
 벌거 벗  
 벌거 벗기  
 거들떠 보  
 건너 보  
 겨눠 보  
 굽어 보  
 꼬나 보  
 꿰뚫어 보  
 날아 #보  
 낮추어 보  
 내려 보  
 넣어 #보  
 노려 보  
 놀아 #보  
 눈여겨 보  
 눌러 보  
 느껴 #보  
 달아 #보



대 #보  
 둘러 보  
 둘러 보  
 돌아 보  
 돌이켜 보  
 되돌아 보  
 되살펴 보  
 둘러 보  
 뒤돌아 보  
 뒤져 #보  
 들추어 보  
 띠 #보  
 뜯어 보  
 물라 보  
 물어 #보  
 미루어 보  
 바뀌 #보  
 바라 보  
 받아 보  
 비추어 보  
 살펴 보  
 스쳐 보  
 쏘아 보  
 알아 보  
 얹잡아 보  
 여겨 보  
 엮어 #보  
 움겨 #보  
 우리러 보  
 재어 #보

접해 #보  
 지내 #보  
 지켜 보  
 찾아 #보  
 훑어 보  
 훑쳐 보  
 흘겨 보  
 흘려 보  
 날려 보내  
 내 보내  
 내려 보내  
 놓아 보내  
 둘러 보내  
 들여 보내  
 올려 보내  
 내 보이  
 바라 보이  
 내 부딪  
 내 부딪뜨  
 까 부수  
 깨 부수  
 때려 부수  
 쳐 부수  
 벗어 부치  
 들어 붓  
 쏟아 붓  
 지어 붓  
 퍼 붓  
 나 불  
 늘어 불

늘어 불  
 다가 불  
 달라 불  
 둘러 불  
 둘러 불  
 둘러 불  
 따라 불  
 말라 불  
 얼러 불  
 얼어 불  
 옮겨 불  
 줄아 불  
 같아 불이  
 견어 불이  
 걸어 불이  
 내 불이  
 메 불이  
 몰아 불이  
 밀어 불이  
 쏘아 불이  
 내 비치  
 내려 비치  
 말라 비틀어  
 꿩아 #빠지  
 낚아 #빠지  
 늪어 #빠지  
 둘러 빠지  
 말라 #빠지  
 썩어 #빠지  
 머물어 #빠지

내 빠  
 잡아 빠  
 나가 빠드러  
 내 빨  
 내 빨치  
 내 뽑  
 내 뿌리  
 내 뽐  
 몰아 사다  
 붙어 살  
 숨어 살  
 엮혀 살  
 쥐여 살  
 먹여 살리  
 굶어 살피  
 구슬려 삶  
 구워 삶  
 엮어 삶  
 거며 삼키  
 집어 삼키  
 뚫어 새기  
 갈라 서  
 갈아 서  
 건너 서  
 기대 서  
 나 서  
 내려 서  
 넘어 서  
 늘어 서  
 다가 서

돌라 서  
 돌아 서  
 들러 서  
 들어 서  
 멈춰 서  
 물러 서  
 붙어 서  
 비켜 서  
 올라 서  
 일어 서  
 주워 섬기  
 집어 세다  
 갈아 세우  
 구슬려 세우  
 까 세우  
 내 세우  
 닦아 세우  
 돌려 세우  
 들여 세우  
 몰아 세우  
 묶어 세우  
 불러 세우  
 붙어 세우  
 추켜 세우  
 치켜 세우  
 내 솟  
 내 쉬  
 몰아 쉬  
 돌라 싸  
 들러 싸

에워 싸  
 옥여 싸  
 들러 싸이  
 에워 싸이  
 에워 싸이  
 돌라 쌍  
 들여 쌍  
 드러 쌍이  
 내 소  
 내려 소  
 내려 쏟  
 내려 쏟아지  
 갈겨 쓰  
 고쳐 쓰  
 날려 쓰  
 내려 쓰  
 넘겨 쓰  
 눌러 쓰  
 덮어 쓰  
 돌려 쓰  
 들러 쓰  
 뒤집어 쓰  
 띄어 쓰  
 받아 쓰  
 베껴 쓰  
 아껴 쓰  
 풀어 쓰  
 나가 쓰러지  
 넘겨 쓰우  
 덮어 쓰우

뒤집어 씌우  
 내 씹  
 거머 안  
 그러 안  
 꺼 안  
 끌어 안  
 부동켜 안  
 부여 안  
 열짜 안  
 가라 앓  
 걸어 앓  
 걸터 앓  
 기대 앓  
 꿰어 앓  
 나 앓  
 내 앓  
 내려 앓  
 눌러 앓  
 늘어 앓  
 다가 앓  
 돌라 앓  
 돌아 앓  
 둘러 앓  
 들어 앓  
 물러 앓  
 비켜 앓  
 올라 앓  
 옮겨 앓  
 일어 앓  
 주저 앓

가라 앓히  
 꿰어 앓히  
 들여 앓히  
 주저 앓히  
 갈아 옆  
 둘러 옆  
 뒤집어 옆  
 나 옆어지  
 비집어 열  
 가져 #오  
 갈려 오  
 거쳐 오  
 건너 오  
 걸어 오  
 걸어 #오  
 굴러 오  
 기어 오  
 길어 #오  
 끌려 오  
 끌어 #오  
 나 오  
 나아 오  
 날라 #오  
 날려 오  
 날아 오  
 내 #오  
 내려 오  
 내뻐 오  
 내어 #오  
 넘어 오

누려 #오  
 다가 오  
 다녀 오  
 다려 #오  
 닥쳐 오  
 달려 오  
 대 오  
 데려 #오  
 도다녀 오  
 돌라 #오  
 돌아 오  
 되돌아 오  
 되짚어 오  
 뒤따라 오  
 뒤쫓아 오  
 들리 오  
 들어 오  
 들어 #오  
 따라 오  
 떠 오  
 떠나 오  
 뛰어 오  
 모여 오  
 몰려 오  
 몰아 #오  
 물러 오  
 물려 오  
 밀려 오  
 받아 #오  
 보내 #오

불려 #오  
 불려 오  
 불어 오  
 살아 오  
 살아 #오  
 앓아 #오  
 앞서 오  
 에워 오  
 올라 오  
 옮겨 #오  
 옮겨 오  
 올려 오  
 잡혀 오  
 저러 #오  
 적서 #오  
 제의해 #오  
 저 #오  
 좁혀 #오  
 좇아 오  
 지나 오  
 질러 오  
 쫓겨 오  
 쫓아 오  
 찾아 오  
 찾아 #오  
 처 #오  
 흘러 오  
 뛰어 오르  
 뺨쳐 오르  
 부풀어 오르

피어	오르
부어	오르
번쳐	오르
떠	오르
기어	오르
끓어	오르
솟아	오르
타	오르
달아	오르
날아	오르
나	오르
차	오르
기어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
치켜	올라가
거슬러	올라오
건져	올리
까	올리
끄어	올리
끄집어	올리
끌어	올리
들어	올리
떠	올리
빨아	올리
자아	올리
차	올리
쳐	올리
추어	올리
추켜	올리
치켜	올리

느껴	울
불러	일으키
뜯어	읽
갈아	입
껴	입
받쳐	입
차려	입
붙어	#있
젓어	#있
나	자빠지
나가	자빠지
놀라	자빠지
가려	잡
거머	잡
걸어	잡
골라	잡
그러	잡
껴	잡
끌어	잡
넘겨	잡
따라	잡
부여	잡
싸	잡
움켜	잡
조여	잡
추켜	잡
틀어	잡
휘어	잡
움켜	잡히
드러	장이

내        젓  
 열어     젓뜨리  
 밀어     젓히  
 벗어     젓히  
 열어     젓히  
 웃어     젓히  
 웃어     제치  
 불러     제치  
 벗어     제치  
 열어     제치  
 갈아     #주  
 감싸     #주  
 건네     #주  
 그어     #주  
 깎아     #주  
 깔아     #주  
 끊어     #주  
 나누어  #주  
 나타내  #주  
 남겨     #주  
 낮춰     #주  
 내        #주  
 내려    #주  
 넘겨     #주  
 넣어     #주  
 높여     #주  
 놓아     #주  
 눈감아  #주  
 눌러    #주  
 늘려     #주

닦아     #주  
 대        #주  
 덜어     #주  
 돌려    #주  
 둘러     #주  
 되어    #주  
 둘러     #주  
 들어     #주  
 몰라     #주  
 몰아     #주  
 물려     #주  
 물어     #주  
 믿어     #주  
 마래     #주  
 반겨     #주  
 받아     #주  
 받쳐     #주  
 보아     #주  
 빌려     #주  
 살려     #주  
 알아     #주  
 엮어     #주  
 올려     #주  
 이해해  #주  
 일깨워  #주  
 일러     #주  
 읽어     #주  
 잘라     #주  
 전해    #주  
 접어     #주

좁혀 #주  
 죽여 #주  
 쥐어 #주  
 집어 #주  
 쳐 #주  
 추어 #주  
 풀어 #주  
 때려 죽이  
 잡아 죽이  
 쳐 죽이  
 감싸 쥐  
 거머 쥐  
 고쳐 쥐  
 그리 쥐  
 굶어 쥐  
 움켜 쥐  
 움켜 쥐  
 틀어 쥐  
 가까와 #지  
 가해 #지  
 간추려 #지  
 갈라 #지  
 걸쳐 #지  
 겹쳐 #지  
 굶어 #지  
 굶혀 #지  
 기울어 지  
 길들여 #지  
 깨어 #지  
 끊어 지

나라 지  
 남겨 #지  
 내려 #지  
 내맡겨 #지  
 넘어 지  
 높아 #지  
 누그러 지  
 늘어 지  
 달라 #지  
 돌려 #지  
 되찾아 #지  
 뒤집어 #지  
 뒤집혀 #지  
 드리워 #지  
 떨어 지  
 뚫어 #지  
 망가 지  
 묶여 #지  
 미끄러 지  
 믿어 #지  
 바꿔 #지  
 바라 지  
 바스러 지  
 밝혀 #지  
 버려 #지  
 벌어 #지  
 벗겨 #지  
 벗어 #지  
 부러 지  
 부서 지



부스러 지  
 비뚫어 #지  
 비어 지  
 빗어 #지  
 빠개 #지  
 세워 #지  
 숙어 #지  
 쏟아 지  
 알려 #지  
 얻어 #지  
 엮드리 지  
 엮어 지  
 여겨 #지  
 오그라 지  
 오므라 지  
 올려 #지  
 옮겨 #지  
 움츠러 지  
 우므러 지  
 움츠러 지  
 이루어 #지  
 이어 #지  
 잊혀 #지  
 잣아 #지  
 잣혀 #지  
 재어 #지  
 접어 #지  
 좋아 #지  
 주어 #지  
 쥐어 #지

지워 #지  
 짙어 지  
 짜부라 지  
 쪼개 #지  
 쪼그라 지  
 쭈그러 지  
 찌그러 지  
 켜 #지  
 터 지  
 토라 지  
 틀어 지  
 풀어 #지  
 해 지  
 해어 지  
 허물어 지  
 헤어 지  
 휘어 #지  
 흐려 #지  
 흐트러 지  
 흠어 #지  
 누워 지내  
 물려 지내  
 붙여 지내  
 죽어 지내  
 쥐여 지내  
 건너 지르  
 걷어 지르  
 깎아 지르  
 내 지르  
 쥐어 지르

건너 질리  
 걸어 질리  
 고쳐 짓  
 건너 짚  
 넘겨 짚  
 모아 짜  
 쥐어 짜  
 내 좃  
 내려 좃  
 내 좃기  
 내려 찍  
 걸어 차  
 꿰 차  
 꿰어 차  
 내 차  
 들어 차  
 알아 차리  
 걸어 채  
 나꿔 채  
 낚아 채  
 알아 채  
 잡아 채  
 걸어 치  
 꿰어 치  
 내 치  
 내려 치  
 돌려 치  
 돌아 치  
 들러 치  
 메 치

매어 치  
 몰아 치  
 바꿔 치  
 받아 치  
 볶아 치  
 얼러 치  
 엮어 치  
 죄어 치  
 쥐어 치  
 후려 치  
 갈아 치우  
 걷어 치우  
 때려 치우  
 먹어 치우  
 집어 치우  
 해 치우  
 갈아 타  
 걸터 타  
 올라 타  
 잡아 타  
 게올러 #터지  
 굶아 터지  
 물러 #터지  
 불어 터지  
 얻어 터지  
 쥐어 틀  
 두들겨 패  
 우비어 파  
 호비어 파  
 후벼 파

내        팽개치  
올려      퍼지  
무거워 #하  
파        헤치  
풀어      해치  
내        휘두르  
넘쳐      흐르  
내        흔들  
쥐어      흔들

[부록2]

## ‘… X(를) … 하다’의 짝이 없는 ‘X하다’ 동사 목록1)

- 가름하다 …이 말썸으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감지덕지하다(感之德之-) …김치찌개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가…
- 개의를하다(介意-) …조금도 개의하지 않는 듯이… / …그들은 개의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 …알아도 개의할 사람이 아니다.
- 개재하다(介在-) …무엇이 개재해 있다는 것을… / …사이에 개재하는 1200여년의 시간적 간격을…

---

1) (1) 여기에 제시하는 동사들은 ‘X’가 2음절 이상인데도 ‘X(를) 어찌(副詞語) 하다’ 또는 ‘어떠한(冠形語) X(를) 하다’와 같은 대격 구성 짝을 가지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관형어, 부사어가 없는 ‘X를 하다’의 짝은 가질 수 있다: \*반가운 맞이(를) 하다, 맞이(를) 반갑게 하다, 맞이(를) 하다, \*정확한 해당을 하다, \*해당을 바로 하다, 해당을 하다. ‘\*… X(를) … 하다’는 그러한 뜻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맞이하다’처럼 ‘X’가 이룰때면 [+행위성]을 가지지만 독립된 명사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대격 구성 짝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과 ‘該當하다’처럼 [+행위성]을 가지지 못하여 대격 구성 짝을 가지지 못하는 두 경우가 들어 있다.

(2) 본고의 자료는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 뽑은 것이다. 예문 중에는 필자가 작성한 것도 일부 있다. 《연세 한국어 사전》은 ‘X하다’형 표제어에 대해서는 참고란에 그것이 ‘X를 하다’의 짝을 가지는지 밝히고 있다. 본고의 자료는 ‘X를 하다’로도 쓰인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 중에서 다시 고른 것이다. 김창섭(1995)에서는 ‘X하다’형 동사의 사전풀이에는 그것이 ‘X를 … 하다’의 대격 구성을 가질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3) ‘-化’를 가진 동사들은 대개 능격동사로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을 겸비하고 있다. 그 외에 ‘重疊하다’ 같은 동사도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을 겸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동사 용법만 정리하였다.

- 격증하다(激增-) ...꼭 10배로 격증했다. / ...사고율이 격증하는 거죠.  
/ ...수가 격증하도 있다고 한다.
- 격화하다(激化-) ...경제적 모순이 격화하며...
- 경이하다(驚異-) ...가격이 경이할 만큼... / ...걸친 경이할 만한 상품  
의 증가는...
- 경직하다(硬直-) 인부들이 모두 경직한 표정들로 나타나서...
- 고립하다(孤立-) ...사물은 고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 고립화하다(孤立化-) ...학생들로부터 고립화하는 시책으로...
- 고생고생하다(苦生苦生-) 몇 해씩이나 고생고생해 가면서...
- 몰몰하다(汨沒-) ...스스로의 생각에 몰몰하고 있을 때... / ...연극연  
습에 몰몰했다.
- 공통하다(共通-) 그것은 세계에 공통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약탈 전  
쟁이나 국제적 전쟁은 서로 공통하는 점이 많다.
- 관련하다(關聯-) 나는 이 일에 관련하고 싶지도 않으니...
- 괄목하다(刮目-) ['괄목할'의 꼴로 쓰이어] ...이래 괄목할 정도의...
- 구체화하다(具體化-) 계획이 구체화하면...
- 귀착하다(歸着-)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 극대화하다(極大化-) 민족의식이 극대화하고...
- 극소화하다(極小化-) ...피해가 극소화하도록...
- 근대화하다(近代化-) 전통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 기존하다(既存-) ...당대에 기존해 있던 사회질서의... / ...작곡가들이  
기존해 있는 양식을...
- 기진하다(氣盡-) ...종배는 기진하여 제 집 방에...
- 낙후하다(落後-) ...원래 낙후했던 우리의 경제를...
- 내재하다(內在-) ...문학작품에 내재하는 의미의...
- 다원화하다(多元化-) ...조직이 다원화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 대중화하다(大衆化-) ...의식하게 되어 대중화하고...
- 돌출하다(突出-) ...우뚝 돌출한 모습으로... / ...대륙에서 돌출한 반도  
와...
- 등대하다(等待-) ...이석이가 등대하고 있다가... / 역에서 등대했던 자

동차는...

만수무강하다(萬壽無疆-) 각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 ...할머니에게 만수무강하시라며...

만연하다(蔓延-) ...기생충이 만연하게 했으며... /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만장하다(滿場-) [주로 '만장하신'의 꼴로 쓰이어]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미급하다(未及-) 우리말은 총 어휘후의 과반수에 미급하게 될 것이다.

밀집하다(密集-)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지역의... / ...그 곳에 밀집해 있어서...

반감하다(半減-) ...독특한 맛이 반감해 버렸다. / ...오히려 반감한다.

배가하다(倍加-) 김 주임 때문에 불쾌감이 배가했는지도 모른다. 매 30년마다 인구가 배가한다.

부동하다(不動-) ...원래 부동하는 실천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부수하다(附隨-) ...전달기능에 부수함으로써 가능했던... / ...행위에 부수하며 그 의미에서...

부재하다(不在-) ...리더쉽도 부재한 경우에는 개혁을 위한... / ...탐구 열정이 부재한 상태가...

불만족하다(不滿足-) 그가 자신의 욕망에 불만족하였을 때...

불멸하다(不滅-) 영혼은 불멸한다.

불문곡직하다(不問曲直-) ['불문곡직하고'의 꼴로 쓰이어] 시비를 거는 척하면서 불문곡직하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불변하다(不變-) ...인간사회에도 불변하는 법칙이 있다.

비롯하다 ...신라에서 비롯한 고유의 도이다. / ...계몽주의에서 비롯하는 것이었다.

비분하다(悲憤-) ...짓밟히는 것을 비분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빈발하다(頻發-) ...각종 농기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사회화하다(社會化-) 국민 각자의 심성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 ...사회화한 인간이...

산업화하다(產業化-) ...도시화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 산재하다(散在-) ...술집이 산재해 있었다. / ...도처에 산재해 있었다.
- 산적하다(山積-) ['산적한, 산적해'의 꼴로 쓰이어]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 상기하다(上氣-) 얼굴이 빨갛게 상기했다.
- 상기하다(上記-) 상기한 두 논문을... / 상기한 바와 같이...
- 상당하다(相當-) ...덤핑에 상당하는 액수를...
- 상반하다(相反-) ...이들 사이에는 상반하는 주장들이... / ...이해 관계가 상반하여...
- 상위하다(相違-) ...이해 관계가 상위하다는 문제와...
- 상응하다(相應-)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 주어야...
- 상접하다(相接-) 논리학의 기본 문제와 상접한다.
- 상통하다(相通-) 인간적이라는 것은... 온정이란 것과... 곧바로 상통하는 말이다. / ...가치기준이 상통하고 의견이 일치되어...
- 생동하다(生動-) ...현실 속에서 생동하는 인간상들의... / ...상태가 아니라 생동하는 이미지입니다.
- 선행하다(先行-) 형식이 내용에 선행하여 좋은 결과를... / 복음의 전파에 선행하는 기독교의 책임이다.
- 세전하다(世傳-) ...충견의 이야기가 세전하게 된 동기가...
- 소재하다(所在-) 상공부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 나는 안양에 소재한 어느 전자회사에...
- 속출하다(續出-)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 ...양반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 쇠진하다(衰盡-) ...차츰 쇠진할 만도 한데... / ...것이었지만 쇠진한 체력 때문인지...
- 습관화하다(習慣化-) 운동이 습관화하면
- 시종일관하다(始終一貫-) ...소극적인 부인으로 시종일관했다. / ...성토했는 것으로 시종일관했다.
- 식상하다(食傷-) ...기름진 음식에 식상해 있다가... / ...거의 식상해 버렸다.

- 신장하다(伸張-) 제품의 매출은 광고 이전에 비해 5배나 신장하여... / ...나일론의 수요가 신장하고 있다.
- 신출귀몰하다(神出鬼沒-) 그의 전법은 ...달려나가는 등 신출귀몰하므로...
- 실재하다(實在-) ...세상에 실재하는 것이면 이미... /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산천을 묘사의 대상으로...
- 실존하다(實存-) ...춘향이를 실존하였던 인물로...
- 애통하다(哀痛-) 딸 때문에 얼마나 애통한지 죽고 싶어요. /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 엄존하다(儼存-) 우리 정부가 엄존하는 이상...
- 연면하다(連綿-) 간디는 고대 인도로부터 연면하고 있는 평화의 사상을...
- 연속하다(連續-) 행랑채는 안채의 행랑에 연속해서 기억자로 돌아... / ...고통과 수난을 연속해서 받아온 그녀를...
- 연원하다(淵源-) ...신라 헌강왕 때에 연원하는 가면... / ...창에서 연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 우선하다(優先-) ...노약자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세요. / ...일반인에 우선하여 배정받는 혜택이...
- 웅거하다(雄據-) ...북방에 웅거했다. / ...상루지방에 웅거해 살던 유목민이었다.
- 위치하다(位置-) 북쪽에 위치한 강의실은 시원하다 못해... /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 유유자적하다(悠悠自適-) ...교류하며 유유자적하고 있었다.
- 융화하다(融和-) ...친구들과 잘 융화하면서...
- 의무화하다(義務化-) 군대 복무가 의무화하여...
- 인접하다(隣接-) ...군사 분계선과 인접해 있어서 글자 그대로... / ...서로 인접하여 생활하는 곳으로...
- 일맥상통하다(一脈相通-) ...서정성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 ...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일반화하다(一般化-) 고무신의 보급이 일반화하기 이전에는...
- 일변하다(一變-) ...이내 분위기는 일변했다.



- 압박하다(臨迫-) 어느 새 결혼식이 내일로 압박해 버렸다. / ...퇴근 시간이 압박해서...
- 입각하다(立脚-) ...고전적 이론에 입각한 자본주의도 없거니와... / ...경함에 입각해서 여성의...
- 자족하다(自足-) ...학원장으로 자족하고 있었다.
- 자진하다(自進-) ...이 곳에 자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고... / ...마음으로 자진하여 밤일을...
- 작열하다(灼熱-) 해는 머리위에서 작열하고 있었다.
- 잔재하다(殘在-) ...관료조직내에 잔재하는 특권적 관료의식이...
- 잠재하다(潛在-) 남자들에게는 야성적인 심리가 잠재해 있다고 한다. / ...공폭가 무의식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 장기화하다(長期化-) 노사분규가 장기화할 경우...
- 장수하다(長壽-) ...싫어하고 장수하기를 희망한다. / ...발달함에 따라 장수하는 노인들의 수가...
- 저하하다(低下-) 대중의 구매력이 저하하면... / 단위 생산 원가가 저하하게 되면...
- 전전긍긍하다(戰戰兢兢-) ...누가 당할지 모른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 점고하다(漸高-) ...관료제의 필요성이 점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 점진하다(漸進-) ...히스테리가 점진하는 것은... / ...차가 그나마도 점진하고 있으니...
- 조실부모하다(早失父母-) 나는 여섯 살 때 조실부모하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덟 살에 조실부모하고 숙부댁에 기식하던...
- 조화하다(調和-) ...음과 양이 조화하는 세대... / 사회에서 잘 조화하고 잘 적응하도록...
- 주춤하다 ...기술 개발이 주춤해졌다. / 6.29 선언 이후 주춤했던 대학가...
- 중첩하다(重疊-) ...궤도와 중첩하도록 위치되어야 한다. / 이처럼 내외로 중첩한 난제들 속에서...
- 즈음하다 ...변혁기에 즈음한 역사의 순리로 간주되는 사건이

- 다.
- 질겁하다 ...죄 짓다 들킨 것처럼 질겁해서 소리쳤다.
- 창성하다(昌盛-) ...싸움에 이겨 그 세가 날로 창성하였다.
- 체질화하다(體質化-) ...국내 건설 업계에 체질화한 바리를 근원적으로...
- 최소화하다(最小化-) 사고율이 최소화해...
- 충천하다(衝天-) ...하늘에 화광이 충천하고 폭격과... /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하는 사기를... 노기 충천한 산신령의...
- 치부하다(置簿-)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했다. / ...자유민주주의자로 치부하고 있었다.
- 침체하다(沈滯-) 이미 침체한 산업에서 남아도는 인력이... / ...아버지 자신의 침체한 상태를...
- 특수화하다(特殊化-) 대학 교육이 특수화하였다.
- 팽배하다(澎湃-)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
- 편재하다(遍在-) 모든 곳에 편재하는 어떤 것을 찾아... / ...전국에 편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 평행하다(平行-) ...영구히 떨어져 평행하는 철도 궤도와 같은 것으로... / ...교훈적 의미의 두 층이 서로 평행하고 있다.
- 피폐하다(疲弊-) ...그것은 피폐한 늙은이를 보는 것 같은... / 사람도 피폐하고 전답도 피폐하여... / ...정치와 사회가 당쟁으로 극도로 피폐하였다.
- 필적하다(匹敵-) ...고려자기에 필적하고 또는 우수함을
- 해당하다(該當-) ...총예산의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대사구라는 높은 벼슬이...
- 현실화하다(現實化-) 그의 야심이 현실화하는 날...
- 희희낙락하다(喜喜樂樂-) ...얼굴을 보고 희희낙락한 애들의 모습을 보면... / ...마냥 희희낙락해 있었다.